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48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7월 8일)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녹색사찰 '등록 50호' 뚝심의 '그린 부디즘'

2018년 '고양 금륜사'가 1호
5년간 전국 50여 사찰 등록
비닐 · 종이컵 일회용품 없애
사찰별 노하우 공유하며 소통

타종교 대비 확산 속도 더뎌
대부분 녹색사찰 유지 '긍정'
"지역사회 환경주체가 목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8년 7월 고양 금륜사를 1호로 시작된 불교환경연대의 녹색사찰이 5년여 만에 전국 50개 사찰로 늘어났다. 연간 평균 10개 사찰이 녹색사찰운동에 동참하면서 확산세는 더디지만 환경인식 개선 효과만큼은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사찰 50호의 주인공은 고양 법문사(주지 일문)다. 지난 8월 16일 경내에서 불교환경연대와의 협약을 통해 녹색사찰로 이름을 올렸다. 법문사는 불교환경연대 부설 비로자나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의 제1호 발전소인 '비로자나고양햇빛발전소' 이기도 하다. 지난 6월 고양시에 42.48㎾ 용량의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정도로 환경에 관심이 높은 사찰이다. 같은 날 저녁, 울산에선 황룡사(주지 황산)가 울산불교환경연대와의 협약으로 녹색사찰 51호가 됐다.

어느덧 만 5년을 지나온 녹색사찰운동. 이전까지 불교환경연대의 환경운동은 굵직한 국책사업에 대한 투쟁이 주를 이뤘다. 2001년 사패산 관통 터널 개발을 비롯해 새만금 간척, 4대강 사업,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개발 등에 앞장서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 사이 빈 그릇운동과 생태방생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 했지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국책사업들로 인해 크게 조명 받진 못했다.

이런 불교환경연대가 녹색사찰운동을 기획한 건 대형 이슈에 대한 선도적 투쟁만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찰에는 대중이 있고, 대중의 힘으로 환경운동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녹색사찰로 이어졌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불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꼭 해야 하는 일을 해보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연기사상만으로도 생태계 파괴는 곧 인류 생존의 문제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종교가 불교"라고 설명했다.

녹색사찰 1호는 2018년 7월 8일 '일회용품 안 쓰는 녹색사찰 실천협약'을 맺은 고양 금륜사다. 이보다 두 달 앞서 '일회용품 없는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하며 점차 경내의 일회용품을 걷어내기 시작해 녹색사찰로 등록한 것. 비닐을 쓰지 않기 위해 떡을 뻥튀기에 올려 나눠주기도 한 금륜사는 신도들에게 각자 용기를 챙겨올 것을 당부했다. 4호 사찰인 의정부 석림사도 '석림사 회수용'이라고 쓴 다회용기를 활용해 팥죽과 떡을 나눴다. 2021년 12월, 30호 사찰로 등록한 한마음선원은 EM발효액을 보급해 다른 사찰들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도왔다.

녹색사찰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활동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불단을 장엄할 때는 일반적인 꽃꽂이 대신 화분을 사용하고, 보자기를 모아 천주머니를 만들어 나눠주거나 남는 신문지로 종이봉투를 만드는 사찰도 있었다.

이렇게 약 5년간 탄생한 50여 개의 녹색사찰. 안타깝지만 숫자로는 이웃종교에 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개신교는 이미 녹색교회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고, 매년 6월 첫째 주를 환경주일로 선정해 '환경주간 공동기도문'과 별도의 예배자료까지 활용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녹색사찰이 이웃종교에 비해 빠르게 확산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일회용품 안 쓰기'를 꼽는다. 여러 사찰에서 녹색사찰 등록 문의를 해오지만 경내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하나만으로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주영 사무총장은 "일회용품 안 쓰기가 한편으론 녹색사찰의 진입장벽이 되기도 하는데 반대로 그만큼 확고한 결의이기도 하다"며 "예상한 것보다 녹색사찰 등록 수는 적어도 진짜배기들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5년여의 세월 동안 녹색사찰로 등록했다가 이름을 내린 곳은 서울 열린선원 한 곳뿐이다. 다른 사찰들은 주지스님이 바뀌더라도 녹색사찰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대부분의 녹색사찰이 공찰이 아닌 사설사암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다.

앞으로 불교환경연대의 녹색사찰운동 목표는 개별사찰의 내부적인 환경운동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것이다. 사찰이 기후행동의 주체로서 환경교육이나 캠페인을 하고,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것. 이를 위해 불교환경연대 지부를 늘려 지역단위 소통에 힘쓸 계획이다.

한주영 사무총장은 "녹색사찰이 단순히 늘어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찰을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게 최종 목표"라며 "환경을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교적 삶을 살 수 있게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8월 16일 불국사 무설전을 찾아 성타 대종사 영단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조계종 원로의원 나가 성타 대종사 원적

8월 15일 오전 불국사서
19일 범영루서 영결식 엄수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회주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나가 성타 대종사〈사진〉가 8월 15일 오전 11시 20분 불국사에서 법랍 72년, 세수 83세로 원적에 들었다. 분향소는 불국사 무설전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19일 오전 10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불국사 범영루 앞 광장에서 엄수됐다. 〈차주상보〉

성타 대종사는 '여시래(如是來) 여시거(如是去) 차생사(此生死) 불가언(不可言)'이라는 열반게를 남겼다. 뜻은 '이와 같이 왔다가 이와 같이 가는데 이러한 생과 사는 말로 해서 무엇하리'다.

성타 대종사는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2년 학성선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8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1년 통도사 강원 대교과 졸업 후 제6·7·8·10·11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포교원장과 호계원장, 불국사 주지,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성림문화재연구원 이사장, BBS대구불교방송 사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조계종 종정상, 국무총리상, 대통령포장, 국민훈장 모란장 등 불교계와 정부차원의 다양한 수상 이력을 갖고 있다.

저서로 〈마음 멈춘 곳에 행복이라〉 〈금오집〉 〈자연과 나〉 등을 비롯해 번역서 〈불소행찬〉, 다수의 논문 등을 냈으며, 지난해에는 학인시절부터 쓴 일기와 법문 등의 기록을 엮어 〈노을을 등지고 달을 벗 삼아〉를 출간한 바 있다.

윤호섭 기자

성파 종정예하 "도반이 떠나간다" 애도

8월 16일 무설전 찾아 추모
진우 스님 등 각계 조문행렬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8월 16일 오후 6시 30분 불국사 무설전을 찾아 하루 전 원적에 든 성타 대종사를 조문했다. 불국사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의 안내로 무설전을 방문한 성파 대종사는 성타 대종사의 영단에 헌화와 삼배로 조문하고 "도반이 자꾸 떠나간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문도대표 정문 스님과 상좌스님들을 위로했다.

성파 대종사는 방명록에 '성파(性坡) 근조(謹弔) 구배(九拜)'라는 글귀를 남기며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성타 대종사를 추모하기 위한 불교계 안팎의 조문행렬은 계속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16일 무설전을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성타 대종사님은 원로의원으로서 종단발전에 기여하셨고, 후학과 포교를 위해 많은 불사를 하셨다"고 회고했다. 또한 진우 스님은 방명록에 '큰스님 속환사바 광도중생 하소서'라고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성타 대종사를 애도하는 조문행렬은 꾸준히 이어졌다.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인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 제10교구본사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과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등이 조문했다.

배철완 대구경북지사장



오랫동안 국제포교와 어린이포교에 앞장서온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자우스님의 통통 튀는 전법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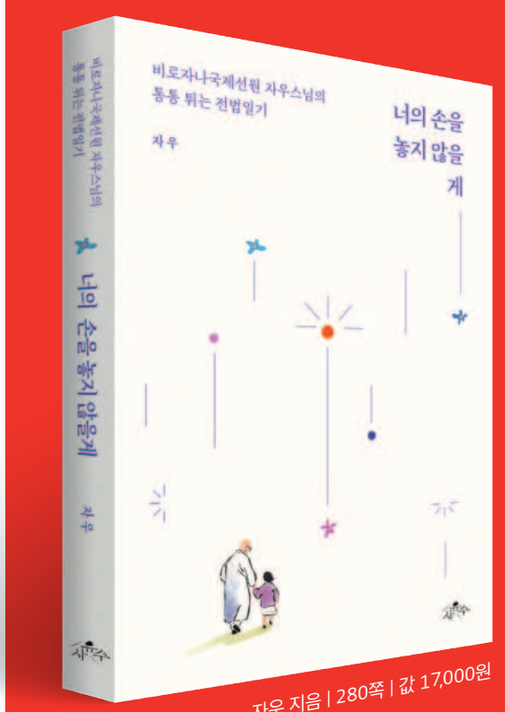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비로자나국제선원을 개원하고 어린이영어캠프, 영어 참선법회 등을 운영하며 국제포교와 어린이포교에 앞장서온 자우스님이 그간 겪은 좌충우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백흥암 행자시절과 유학에 이르는 출가수행 이야기와 인연 닿는 곳마다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온 일화들이 스님 특유의 솔직함과 경쾌함으로 그려져 있다.

자우스님의 자비의 미소가 사람들의 마음에 물결쳐
세상에 환한 빛을 전하기 바랍니다.
_ 정목스님 인터넷 유나방송 대표

비로자나국제선원의 아름다운 보현행이 지구촌 어린이와
청소년의 가슴에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납니다.
_ 미산스님 상도선원 선원장





자우 지음 | 280쪽 | 값 17,000원

저자 자우스님 | 1992년 은해사 백흥암에서 출가했다. 동학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제방 선원 정진 후 스리랑카 캘라니아 대학에서 불교학 석사를 마쳤다. 인도네시아 해인사포교원 주지를 거쳐 서울 홍제동에 비로자나국제선원을 개원, 현재까지 국제포교와 어린이포교, 문화포교 등 다양한 포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유수출판사 전화 (02) 336-8910 사유수

태고종 부원장 선출…28대 집행부 '탄력'

행정부원장 능혜 · 재경부원장 고담 스님 추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중앙종회 제148회 임시회
부장단 임명 동의안 가결
제28대 집행부 구성 완료
원로의원 현호 스님 선출



8월 14일 열린 태고종 중앙종회 제148회 임시회.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가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 취임 후 첫 회의를 열어 총무원 부원장을 선출하고 부장단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태고종 제28대 집행부는 진용을 완벽하게 갖추게 됐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는 8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8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재적의원 60명 중 42명이 참석했으며 △제5대 원로의원 선출(안) △총무원 부원장 선출(안) △총무원 부장 임명동의(안) △종헌종법 일부 개정(안) △자격기준 정정에 따른 법계 자구 수정사항(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제5대 원로의원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추천한 현호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총무원 행정부원장에는 능혜 스님(불심정사 주지), 재경부원장에는 고담 스님(봉원사 부주지)이 각각 추천돼 만장일치 선출됐다.

또한 총무원장이 제안한 총무원 부장 임명 동의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총무부장에 도성 스님(반야정사 주지), 교무부장에 정안 스님(선행암 주지), 재경부장에 효능 스님(청련사), 문화부장에 처명 스님(봉원사), 사회부장에 금산 스님, 규정부장에 진화 스님(용천사 주지), 전법사부장에 심원 전법사(수도사 교임)의 임명이 확정됐다.

'자격 기준 정정에 따른 법계 수정사항' 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의원과 초심위원의 법계가 대덕에서 종덕으로, 지방종회의원과 은사 자격은 중덕에서 대덕으로, 교육원장은 종덕에서 종사로 자격 기준이 상향됐다.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종도들의 선택을 받아 새로 임기를 시작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신념과 포부가 종도들의 염원과 함께 한다면 우리 종단은 1700년 전통을 이어 새로운 천년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중앙종회가 종단 발전의 선두에 서서 종법수호와 종도 권익보호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애종심으로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 발전의 시작을 알렸다. "부원장과 부장 등 신임 집행부는 우리 종단의 지위를 회복하고 종단 운영의 내실을 굳건히 다지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한다"면서 "더불어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종단은 한국불교 적자 종단으로서 종지종풍을 더 없이 드높이는 새로운 천년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향후 종단 발전과 도약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임을 상기하고, 신임 집행부에 신뢰를 보내주길 바란다"며 "중앙종회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믿음은 신임 집행부의 원동력이 돼 종단 발전과 종도 화합의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고종은 9월 5~7일 제주도에서 제15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제228회 임시회 9월 12일 개원

조계종 중앙종회, 원로의원 추천 · 교육원장 선출 등

종법개정안 · 종감특위 구성
총무원과 각 산하기관 대상
고강도 종책질의도 예상돼

원로회의 의원 추천과 교육원장 선출의 건 등을 다룰 조계종 중앙종회 제228회 임시회가 오는 9월 12일 오전 10시 5일간의 회기로 개원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8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 특별위원장 · 종책모임회장단의 제3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28회 임시회 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현재까지 인사안이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원로회의 의원 추천(4석)과 반년째 공석인 교육원장, 재심호계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립학교관리위원 등 다양한 선출 건을 다룬다. 이외에 종법개정안으로는 총무원장 제출 예정인 △승려복지법 개정안 △사찰문화재보존관리법 개정안 △분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 등이 검토 중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11월 정기회에 앞서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뤄질 전망이다. 종감특위는 모든 종회의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총무원과 종단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종책질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화엄3회 회장 삼조 스님은 "일부 종무원들이 신심과 원력이 아닌 아주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행정부에서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종회에서 종책질의를 통해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보통 종무부와 기획실 중심으로 종책질의가 끝나면 순서가 밀린 기관에 대해서는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종책질의를 제대로 하려면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비구니종회의원 스님들이 8월 17일 종단 역점사업 '천년을세우다'에 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비구니종회의원 '천년을세우다' 후원

8월 17일, 진우 스님 예방서 1000만원 전달

조계종 비구니종회의원 스님들이 종단 역점사업인 '천년을세우다'를 위해 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정운 스님을 비롯해 진명 · 혜도 · 정관 · 법해 · 설해 스님 등 비구니종회의원 스님 6명은 8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이 같은 기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비구니종회의원 스님들의 동참이 큰 힘이 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이어 "큰 불사에 마음을 내주셔서 든든하지만 아직 부응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있다"며 "불교적으로 봐도 포교와 전법이 이제는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기운이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전 국비구니회장 선거 진행상황을 물었다.

정운 스님은 "선거법에 따라 단독이든 경쟁이든 틀에 맞춰 여법하게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종단의 주요사업을 위해 비구니종회의원들이 항상 뜻을 모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호섭 기자

진우 스님 "北 인도적 지원 모색을"

8월 17일 김영호 장관 예방서 민간교류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계속된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통일부에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8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을 예방한 김영호 통일부장관에게 이 같은 뜻을 전했다.〈사진〉 스님은 "남북관계가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하지만 최근에는 북핵위협 등으로 긴장도가 더 높아졌다"며 "정치 · 군사분야를 떠나 주민들을 도울 길은 우리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호 장관은 "정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의 개방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우 스님은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의 긴장도를 낮추고 유연하게 풀어나갔으면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 등을 맡은 전문가이신 장관님께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발표한 정전 70주년 기념 메시지를 잘 숙지하고 있다"면서 "불교계가 추진해온 남북사찰 합동법회 등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태효 스님과 기획실장 성화 스님, 사회부장 범종 스님이 배석했다.

한편 지난달 임명된 김영호 장관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보스턴대와 버지니아대 대학원에서 각각 국제정치학 석 · 박사를 받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국립공원 전통사찰 가치 재평가 필요"

진우 스님, 정용욱 문체부 종무실장에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8월 16일 정용욱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에게 종교간 화합을 위한 노력과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 가치 재평가를 당부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정용욱 종무실장의 예방을 받고 "지금은 정교가 분리돼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행복에 주안점을 두고 역할을 하고, 종교 역시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며 "문체부 종무실과 종무실장이 가교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실장은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을 잘 새겨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실천하겠다"고 화답했다.

진우 스님은 앞서 정관계 인사들과의 예방에서도 자주 언급한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가치가 재평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님은 "국립공원에 있는 전통사찰들은 오랫동안 자연환경을 지켜왔음에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막고 수많은 규제를 해왔다"며 "사찰들의 역사와 전통, 문화유산 등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정 실장은 "관련 내용을 살펴 종무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면서 최근 열린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위해 불교계가 적극 나선 일에 감사를 표했다. 정 실장은 "박보균 장관께서 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라고 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정용욱 종무실장은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콜로라도주립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제40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 안전환경정책관 등으로 근무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 대통령비서실 국민제안비서관을 거쳐 문체부 종무실장으로 임명됐다.

윤호섭 기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3개월(출강 · 통신) 속성 교육 (제70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23년 9월 11일 (월) 오후 3시**(목탁, 필기구 지참)
- 출 강 반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통 신 반 : 교재, 교육자료, 강의영상자료(동영상파일) – 메일 또는 카카오톡 발송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문자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net FAX : 02)737-5305

한국불교전통범패 학인모집

위 본 종단 종무원에서는 강주 민지효 스님을 모시고 전통범패의식을 기초의식부터 각종 의식과 사물 다루는 법을 알기 쉽게 교육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바랍니다.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종무원장님으로부터 수료증(이수증)을 수여하며, 성적이 우수한 학인에게는 홍익범패단에 입단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개 강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종무원 법당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47 청하빌딩 4층
■ 접수처 : 부산 종무원 (051-5580-5077)
■ 강 주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내 용
1. 조석예불 : 아침종송, 향수해례, 사성례 등
2. 사시예불 : 거불성, 독경, 동음 등
3.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헌좌게, 도량게 등
4. 천도의식, 수륙제, 점안의식, 화청, 공덕게
5. 천수바라, 사다라리바라, 요잡, 관욕바라
6. 도량게, 다게(나비춤), 법고춤

태고종 부산종무원 원장 마나

국가무형문화제 50호 영산재(세계유네스코 등재)

4대 종교, 자살 유가족 일상 회복 돕는다

불교상담개발원–서울시자살예방센터 '살사프로젝트'

8월 17일, 4대 종교 '열린포럼'
위로법회 · 명상프로그램 소개
죽음 현실 인식 위한 방안 제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자살 유가족을 돕기 위해 서울시와 불교를 비롯한 4대 종교계가 함께 마련한 열린포럼.

자살 유가족들의 돌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시와 4대 종교가 '살자, 사랑하자'를 외치며 함께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은 8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23년 살사프로젝트 '4대 종단과 함께하는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살사 프로젝트'는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의 줄임말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불교 · 원불교 · 천주교 · 개신교 4대 종교계가 협력하는 사업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과 (사)생명문화 라이프호프 조성돈 대표, 정경숙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센터장, 천주교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장 차바우나 신부가 강연자로 나서 종교별 유가족 대상 자살예방사업 활동을 공유했다.

선업 스님은 위로법회와 자조모임, 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비의전화 운영 등 유가족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불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선업 스님은 "이번 열린포럼을 통해 현대인들의 행복한 삶과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종교계가 자살예방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사회의 정신건강 및 생명의 가치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전문기관과 함께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실천사업들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개신교의 유가족과 함께하는 훈훈한 글쓰기와 자살예방 강사 양성, 원불교의 생명존중학교 운영 등 각 종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이 소개됐다.

이범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이날 '자살유가족의 박탈된 애도와 돌봄'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자살 유족의 상황과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감각적 반응과 죽음 현실 인식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범수 교수는 "자살유족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서 통찰은 연기, 집착, 무상으로 인도하는 죽음 수용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통찰을 통해 죽음 위기에서 겪는 혼란의 우여곡절을 새로운 생명의 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지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팀장은 '서울시 자살유족 서비스'에서 유가족 애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설명했다. 류지수 팀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행정절차와 법률서비스, 일시 주거 서비스 등 유족긴급서비스를 통해 부담감과 트라우마 완화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자살유가족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적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남겨진 분들 서로 마음을 나눠요' '넌 혼자가 아니야. 힘내자 우리 함께' '자살 아닌 살자! 살자! 꼭 살자!' 등 유가족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포럼에 앞서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이번 포럼은 서울시와 4대 종교가 함께 현대인들의 행복한 삶과 생명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종교계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해 추구할 내용과 의미,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라면서 "포럼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신건강 및 생명의 가치를 확립해 자살예방을 향해 한 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2015년부터 서울시와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와 함께 '살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살 방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불청 주관 IBYE대회 연기 결정

내년 5~6월, 경북 개최 · 프로그램은 유지

잼버리 여파로 부정적 여론
참가자들 취소 의사 밝혀와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장정화)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3박4일간 경북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제불교청소년교환캠프(IBYE)를 연기하기로 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미흡한 운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대불청이 준비하던 IBYE도 타격을 입은 것.

대불청은 8월 14일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WFBY) 지도부와의 논의 끝에 대회 연기를 발 빠르게 결정했다. 이는 앞서 새만금에서 대규모로 열린 잼버리대회에서 열사병과 감염병 등을 비롯해 주최 측의 운영 미숙 논란이 불거진 데 따라 IBYE 참가희망자도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WFBY)는 올해 IBYE를 연기하고, 내년 2024년 5~6월에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불청은 현재 전국 사찰과 단체에 IBYE 행사 연기 소식을 안내하고 있다.

행사 일정은 변경되지만 불국사를 비롯해 의성 고운사, 예천 국제진호양궁장, 구미 신라불교초전지 등 경상북도 일대를 주 무대로 한 기존 계획은 그대로 이어진다. 장정화 대불청 중앙회장은 "남은 기간 행사 내실을 다져 보다 좋은 모습으로 전 세계 청년불자들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대불청은 또한 이미 발권 준비를 마친 여러 국가 참가자들이 비행기표를 환불하지 못해 한국을 방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해와 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대불청은 이웃나라 청년불자들을 위해 국내 교통편과 숙박 등 관광 편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불청에 따르면 이번 IBYE 참가 신청을 마친 전 세계 청년불자 가운데 60여 명은 행사 연기와 무관하게 방한 입장을 전했다.

장정화 회장은 "불가피한 대회 연기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청년불자들이 없도록 대불청과 각 종단, 스님, 단체에서 관광을 지원해 한국불교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윤재웅 동국대 총장과 학생들이 합장 인사를 하고 있다.

동국대 "이제 매달 11일은 합장DAY"

8월 11일 교내 정각원서
첫 합장데이 캠페인 행사
교내 합장 인사 생활화로
동국 건학이념 구현 추진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매달 11일을 합장데이로 정하고 합장 인사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건학이념 구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동국대는 8월 11일 교내 정각원 법당에서 합장데이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합장데이'는 지난 5월 윤재웅 총장이 발표한 '동국 Meta Plan 120'의 중심 추진과제 중 건학이념 교육과 전법생활화를 위한 캠페인이다. 합장인사를 동국인의 공식 일상 인사법으로 적극 도입하고 확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매달 11일을 합장데이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는 5월 합장데이 선포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행사로 정각원에서 합장인사의 의미를 공유했다. 또한, 참석자 모두 상월결사 108원력문에 맞춰 108배 정진을 이어갔다.

정각원장 진명 스님은 "합장을 하는 이유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의미이자 인사를 하는 당신을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존중하겠다는 의미 역시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교내에서 합장인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국대는 앞으로도 매달 11일 합장데이 행사를 개최해 교내 구성원들의 합장인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27회 만해대상 시상식 더 프라미스 등 수상

8월 12일 인제 내린천센터서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공영대)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7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상기 인제군수 등이 참석했다.

만해대상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생명 · 평화 · 겨레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평화 △실천 △문예 세 부문에 걸쳐 빼어난 업적을 거둔 인물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올해 만해평화대상은 우크라이나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에게 돌아갔다. 실천대상은 불교계 국제구호NGO '더프라미스'와 곽병은 의료복지협동조합 밝음의원 원장이 받았다. 문예대상은 천양희 시인과 前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집행위원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한 '세이브 우크라이나' 미콜라 쿨레바 대표는 "전쟁에서 어린이들을 구출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 상을 통해 여러분의 지지를 느끼고 있다. 우리가 함께 공동의 목표인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실천대상 수상자인 '더 프라미스' 이사장 묘장 스님은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데 대한 보답차원에서라도 우리 단체가 직원들과 함께 해외 구호활동, 국내 구호활동에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고통 받는 이들의 옆에 가장 빠르게 서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만해실천대상 공동수상자인 곽병은 원장은 "수상을 하고 보니 그동안 실천한 일들을 인정 받는 것 같아 기쁜 마음도 있지만, 돌아보면 부끄럽기도 하다"고 전했다.

만해문예대상을 수상한 천양희 시인은 "모두를 위한 시를 쓰겠다"며 "세상의 놀라움과 새로움을 전하기 위해 등대 불빛 같은 만해 스님의 정신을 따라 마음의 절 한 채를 짓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베트남 환아에 자비나눔

8월17일, 국제연꽃마을과 업무협약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명에 연간 2000만 원 지원 약속
보인 스님 "환아에 희망 주는 협약"
수준 높은 수술 · 치료 받도록 최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국제연꽃마을과 업무협약을 맺고 베트남 난치병 어린이 치료에 나선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 스님)이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회장 조당호)과 업무협약을 맺고 베트남 난치병 어린이 치료에 나선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8월 17일 서울 전법회관 재단 대표이사실에서 국제연꽃마을과 MOU를 체결했다. 국제연꽃마을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을 설립한 각현 스님(1944~2014)이 2004년 설립한 NGO 단체다. 각현 스님은 베트남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해원(解冤)의 길을 모색하다 쾅남성 지역의 교육, 복지, 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연꽃마을을 설립했다.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연꽃장학금과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한글학당, 직업훈련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조계종복지재단은 2022년 저소득층 우수학생 연꽃장학금 전달식을 위해 베트남 국제연꽃마을을 방문했다가, 선천성 심장병과 혈액암 등을 앓고 있는 난치병 어린이들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어린이들을 돕고 해외지원사업 영역을 넓히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조계종복지재단과 국제연꽃마을은 2023년 8월부터 1년간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트남 아이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국제연꽃마을이 베트남 쾅남성인민위원회에 의뢰, 심장병 및 난치병 수술과 치료에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 조계종복지재단에 제공하면 재단은 이에 대한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선천성 심장병, 혈액암, 뇌종양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베트남 어린이 20명에게 연간 치료기금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연꽃마을은 쾅남성의 행정협조를 통해 어린이들이 베트남 현지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반지원을 하고 수준 높은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조계종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지난해 베트남 국제연꽃마을에서 난치병 어린이들의 상황을 접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한 지원으로 보다 많은 빈곤가정의 난치병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자들에게도 "빠른 지원이 없으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많은 관심과 자비 실천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제연꽃마을 총재 원상 스님은 협약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아졌기에 국내에서도 쉽지 않은 실천을 이역만리 베트남에서 실현될 수 있게 됐다"면서 "마음을 다잡아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복지재단의 해외 환아 지원은 2013년 라오스를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3여 년간 22억 원을 모연, 국내외 난치병 환아 약 1000여 명에게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온 조계종 복지재단은 2013년 라오스 국립아동병원과 협력, 환아를 지원하고 난치병 환아 통합치료지원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라오스 난치병 어린이 91명에게 후원금 약 5억 원을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 30여 명의 어린이들이 완치판정을 받았다.

한편 조계종 복지재단은 현재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 271-910005-95104 예금주:조계종사회복지재단. 02)723-5101

비로자나국제선원 '베스트 찬불가 20' 영상 제작

8월 19일, 유튜브서 공개
자우 스님 직접 작사도
"新 문화포교 장 열겠다"



BEST찬불가20 스틸 갈무리.

서울 홍제동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이 '베스트 찬불가 20' 영상을 제작,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베스트 찬불가 20은 자우 스님이 포교활동을 하면서 접했던 좋은 찬불가들을 선별, 누구나 평안해질 수 있도록 만든 찬불가 영상이다.

특히 기존 음악을 그대로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새로 제작한 신곡과 재녹음한 곡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자우 스님이 직접 작사하고 이진구 작곡가가 작곡한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는 지난달 사전 공개돼 이미 많은 불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함께 공개된 신곡 '신바람'도 국악풍의 신명나는 노래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신바람'은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의 넓은 마음가짐을 만족할 줄 모르는 현대인들이 있는 그대로 만족을 느끼게 하는 가사가 돋보이는 노래로서 베스트 찬불가 20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과거부터 명곡으로 손꼽히는 '부처님 법안에서' '내 마음의 부처' '바람부는 산사' '우리도 부처님 같이' 뿐 아니라 최근 발표된 '낮은 목소리' '모든 순간이 깨어 있기를' '바리밀' 등 마치 종합선물세트와 같이 다양하면서도 알찬 구성으로 즐거움을 준다.

찬불가의 배경이 되는 영상을 직접 촬영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스마트폰 촬영이 아닌 전문 카메라로 촬영한 4K 영상은 음악을 듣는 동안 마음을 평안하게 이끌어준다. 또 모든 노래가사를 화면에 노출시켜 찬불가의 의미를 분명히 전달할 뿐 아니라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영상 총 감독인 자우 스님은 "노래로 전달되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마음의 안정과 삶의 희망을 느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유튜브와 찬불가를 통해 새로운 문화포교의 장을 열어가는 선원의 행보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베스트 찬불가 20 영상은 8월 19일 비로자나국제선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oreacosmicbuddha)에서 공개됐다. 이번 영상 외에도 주제별, 계절별 찬불가 등 대중의 의견에 따라 후속 영상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비로자나국제선원은 도심포교와 국제포교의 원력으로 자우 스님이 2006년 10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문을 열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영어 잠선법회와 어린이, 청소년 영어담마스쿨, 영어담마캠프를 진행해 왔다. 찬불가 영상제작과 보급으로 시대를 위로하고 유튜브 채널 〈비로자나국제선원〉을 운영하며 법문과 라이브방송으로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고 있다.

임은호 기자

한불회 OB · YB, 템플스테이로 '대동단결'

한양대 불교학생회 동문 · 재학생 템플스테이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양대 불교학생회(이하 한불회) 동문과 재학생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사진〉

한양대 불교학생회 동문모임인 '한불회선지식(회장 남중우)'은 한불회 재학생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산 통도사와 부산 기장군 묘관음사에서 개최했다.

재학생 13명과 동문, 가족 등 47명이 참가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통도사 극락암을 참배하고 한양대 동문으로서 출가한 덕운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통도사에서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스님과 습의사스님으로부터 사찰예절을 배우고 염색, 컵등 만들기, 사물관람 및 저녁예불, 보궁명상, 스님과의 대화 시간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새벽예불, 나를 깨우는 108배와 명상, 암자순례 및 걷기명상 등이 이뤄졌으며, 이후에는 선지식 동문인 부산 기장 묘관음사 주지 서강 스님에게 법문을 청해 들었다.

남중우 한불회선지식 회장은 "재학생 불교학생회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진로 멘토링의 영향으로 재학생이 어느 해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신뇨엔, 동국대에 5년 연속 '1000만원'

"불교인재 양성에 써달라" 전달



일본 불교종단 신뇨엔(眞如苑)이 동국대(총장 윤재웅)에 발전기금〈사진〉을 전달했다.

신뇨엔의 기시다 가즈오 부교무장, 마지마 무네야끼 국원 및 정경 국원은 8월 14일 동국대 총장실을 찾아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신뇨엔이 동국대에 기부한 것은 올해로 5년째다. 가즈오 부교무장은 "종립대학 동국대는 불교 인재 양성의 산실"이라며 "기부금이 동국대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재웅 총장은 "5년째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동국대학교에 보내주시는 관심에 부응하고자 불교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은 신뇨엔 기시다 가즈오 부교무장, 마지마 무네야끼 국원, 정경 국원, 동국대 윤재웅 총장, 하홍열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2023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성료

8월 17~20일, 동국대 · 대한극장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주최하고 동국대 영상대학원(원장 차승재)이 주관하는 '2023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OIBFF)가 8월 17~20일 서울 동국대와 대한극장 일대에서 진행됐다.

나흘간 28개국 6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영화제 개막작은 중국 진화칭 감독의 다큐멘터리 '다크 레드 포레스트'로 척박한 티베트 환경 속에서 고난의 수행을 거듭하며 답을 찾아 나서는 2만여 비구니 스님들의 삶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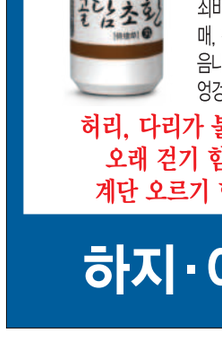
불교영화의 다양한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불자의 시선, 월드 시네마, 동국 OTT 쇼케이스, 단편 컬렉션, 2023 청소년 영화캠프 등 5개 섹션도 함께 진행됐다.

임은호 기자

五臟의 根源인 肝을 지킵시다
(오장) (근원) (간)
肝(간)을 지키는 다슬기 기름
간 건강에는 다슬기 기름




TV조선 코리아헌트 방영
더욱 다양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NAVER 우미산 다슬기기름으로 확인하세요
T. 010-3529-0077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세계잼버리대회, 한국불교 알린 좋은 기회였죠”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장 성행 스님

세계 청소년들의 문화축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8월 12일 폐막했다. 폭염과 준비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기를 넘는 것은 물론, 국가 브랜드 이미지도 지킬 수 있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잼버리 현장에서 묵묵하게 활동을 이어간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장 성행 스님을 만나 잼버리에 대한 총평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성행 스님은 “이번 잼버리는 한국불교를 더 웅성하게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Q. 우여곡절 끝에 잼버리가 마무리됐다. 이번 잼버리에 대해 총평하자면?

A. 환경적으로 문제는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다. 불교계 차원에서는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이 영지 안에서 법당을 운영하며 세계인들에게 한국불교 문화를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템플스테이와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과 K-문화의 접목은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이슈가 됐다. 많은 대원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힐링하고 한국문화도 접할 수 있었다. 민족과 종교, 언어 모든 것이 달라도 함께 야영을 통해 만남의 장을 만들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스카우트 정신이다. 준비 부실과 태풍 등으로 체험식으로 변경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초기 대처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큰 성과다. 조계종에서는 사찰을 개방했고 지역사찰과 템플스테이를 연계, 보다 더 웅성하게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Q.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이 이번 잼버리 활동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있다면?

A. 한국불교가 가진 다양한 문화재를 홍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양한 한국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자는 게 목표였다. 108배 챌린지, 예불체험 등 시대에 맞게 재정립된 한국불교문화 체험활동을 준비했고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게 했다. 푸드 하우스 운영에도 신경 썼다. 스카우트 정신을 담고 불교연맹의 정체성을 고려해 건강과 환경, 문화를 아우르는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 고민했고 떡볶이와 콩국수 등 한국적인 음식들을 선보였다.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맛에 대부분 호기심 있게 반응했다. 대중적인 한국음식들로 준비했어야 하기에 사찰음식에 좀 더 중점을 두지 못한 건 아쉬움이 남는다.

Q. 잼버리 사상 첫 수계법회가 열렸다. 수계법회 분위기는 어땠나?

A. 8월 6일 종교활동장에서 열린 수계법회는 103년 세계잼버리대회 사상 첫 수계법회였다. 폭염으로 인해 약식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300여 명의 대원들이 불자로서 서원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 자리였기에 의미가 크다.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이 설립된 지 11년이 됐고 대한민국에서 열린 잼버리에는 첫 참석이었다. 애초 1200여 명이 동참키로 했는데 폭염과 대회 스케줄 변경 등으로 참여 대원이 대폭 줄었다.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스카우트 오계를 함께 읊고 연비체험을 하며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불교의 수계의식을 접했다는 점에서 뜻깊다. 자료를 미리 받아 한 명 한 명에게 법명도 줬다. 수계증은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해 이해를 높였다. 수계 받은 대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계의식은 생소했지만, 오계를 통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수계법회 후에는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율동단이 대원들과 함께 어우러져 불교무용과 댄스공연을 펼쳐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 낸 점도 기억에 남는다. 한국불교의 화합 정신과 공동체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템플스테이 연계 등 K-문화 접목
세계 대원들 사이서도 큰 이슈돼
잼버리 첫 수계의식 가히 폭발적
한국불교 화합 정신 경험한 시간
프로그램 개발…지도자 양성 등
2년 후 아·태 잼버리 준비 돌입

Q. 어려움 속에서 진행된 잼버리에서 불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갖는 의미는?

A. 조계종에서는 대회 시작 전부터 산문을 열었다. 대회 진행 중 영내 프로그램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전북 지역사찰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영외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했고 태풍이 왔을 때는 서울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찰 템플스테이를 더욱 확대하며 조기 퇴영에 따른 대원들의 아쉬움을 달랬다. 종단의 발 빠른 판단과 총무원장 진우 스님 이하 부국장 스님들의 노력으로 많은 대원들이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불교계의 노력으로 잼버리 활동이 더욱 풍성해졌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제공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

Q. 이번 잼버리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아쉬운 점은 태풍으로 인해 새만금을 떠나야 했던 점이 아닐까 싶다. 영지에서 생활할 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난관을 이겨내고 서로 화합하는 게 잼버리 정신이다. 때문에 K-문화체험으로 변경된 이번 잼버리는 반쪽짜리 같은 느낌이다. 2년 후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가 열린다. 이번 잼버리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준비로 원활한 대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Q. 불교계가 잼버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A. 창립 30주년이 넘은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사찰 불교학생회가 사라지면서 활동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 전 세계 172개국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는 스카우트와 접목한다면 어떨까? 스카우트 활동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세계적 교류도 가능한 활동이다. 스카우트는 청소년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역량을 키워내는 데에는 성인들로 구성된 운영요원(IST)의 역할이 크다. 종단에는 청년대학생 전법단이 있다. 스카우트와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이들과 함께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면 한국불교 세계화에도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한국불교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기대한다.

Q. 스님의 답변 하나하나에 스카우트와 잼버리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A. 11년 전,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이 만들어질 때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1000여 명이 모여 조계사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고등학교 때 스카우트 활동을 했기에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잼버리 활동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일화(世界一花)와 일치한다. 자연 친화를 강조하는 불교와도 일맥상통하는 활동들이다. 대자연 속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타인을 존중하고 이타정신을 발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불교와 일치하는 것들이 많으니 애정을 아니 둘 수 없지 않겠나. 특히나 이번 잼버리는 세계인에게 불교문화뿐 아니라 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를 줬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장으로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A. 2018년부터 연맹장을 맡으며 부처님과 함께 하는 재미있고 신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단 조직 구성에 집중해야한다. 각 지역사찰에 대대를 만들고 훈련을 통해 자격을 갖춘 지도자와 봉사단을 배출하고자 한다. 지난해 중앙승가대 스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5~6명을 스카우트 상급 지도자로 만들었다. 이번 잼버리 기간 동안 2600명 규모의 서브캠프를 운영하기까지에는 이들의 역할이 컸다.

Q. 불교계의 적극적인 활동들로 이번 잼버리는 불자들에게도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A.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준비했고, 성과도 있었다. 2년 뒤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가 한국에서 열린다. 이번 잼버리를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연맹만의 특색을 갖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기대와 관심을 부탁한다.



103년 잼버리 사상 처음 열린 수계법회 모습. 전세계 300여 대원이 동참, 한국불교의 진수를 맛봤다.



성행 스님의 항건들. 아르헨티나 대원과 교환한 항건(중간)은 잼버리에서 남긴 소중한 선물이다.



2600명 규모의 서브캠프를 운영한 20여 명의 한국불교 스카우트연맹 대원들과 함께.

중국 운강석굴,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0월16일 출발~20일 도착(5일 일정)

동참금 | 148만원
일 정 | ▶1일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북경–대동
▶2일 : 운강석굴–응현목탑–현공사–오대산
▶3일 : 오대산 5대봉–동대 망해봉–북대 협두봉–중대–취암봉–서대–계월봉–남대–금수봉 5대 전체 순례
▶4일 : 오대산–보살정–현통사–탑원사–수상사–북경으로 이동
▶5일 : 북경–북경공항–인천(대한항공)



인도 성지순례 10일과 11일 출발일정

동참금 | 270만원~28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상카시아–아그라–델리–인천
▶1차) 10월 28일 출발~11월 07일 도착(11일 일정)
▶2차) 11월 18일 출발~11월 28일 도착(11일 일정)
▶3차) 12월 26일 출발~01월 04일 도착(10일 일정)
▶4차) 01월 13일 출발~01월 23일 도착(11일 일정)

아잔타 석굴 포함 인도성지순례 15일

동참금 | 370만원
일 정 | 인천–델리–오랑가바드–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보팔–산치대탑–아그라–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케사리야–바이샬리–나란다대학–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사르나트–델리–인천
▶10월 17일 출발~10월 31일 도착(15일 일정)
▶12월 26일 출발~01월 09일 도착(15일 일정)
▶01월 16일 출발~01월 30일 도착(15일 일정)

예약·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여성 독립투사 헌신 평생토록 기억”

부산 마하사서 2023 아시아생명평화문예축전

8월 12일 천도재 · 평화콘서트
아랫녘수륙재보존회 의식 집전
13일엔 거리탈굿마당 · 마당극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 있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종군 위안부들이시여, 여성 독립투사들이시여, 당신들의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일제 침략으로 희생당한 위안부와 여성 독립군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2023 아시아 생명평화 문예축전’이 8월 12일 부산 마하사(주지 정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원혼을 천도하고 위로함과 동시에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 가운데 첫 번째 무대가 된 마하사에서는 ‘천도재와 평화콘서트’가 열렸으며, 무차공양을 진행해 영가를 위로하고 희생된 위안부와 독립투사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천도재는 (사)국가무형문화재 아랫녘수륙재보존회가 담당했으며 이어 생명평화콘서트가 펼쳐졌다.

생명평화콘서트는 먼저 승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춤 회심바라승무가 무대를 장식했다. 또한 천지만물 삼라만상 생명의 어머니 ’ 마고할매 ‘의 활갯짓을 상징하는 마고춤이 이어졌으며, 마하사합창단이 부르는 ’ 비목 ‘과 ’ 천개의 바람이 되어 ‘가 울려 퍼졌다. 콘서트는 동래지사춤과 노래 공연 등으로 마무리하며 독립투사와 위안부의 헌신을 기렸다.


‘2023 아시아생명평화문예축전’이 8월 12일 부산 마하사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사)국가무형문화재 아랫녘수륙재보존회가 집전한 천도재.

공동대회장 정산 스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와 약산 김원봉 열사의 부인인 부산의 대표적인 여성독립군 박차성 열사를 비롯해 권애라, 김마리아, 강주룡, 김옥련, 김명시, 조신성 등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셨다”며 “오늘날 우리들이 그분들의 성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운 심정”이라 말했다.

스님은 이어 “곱디 고운 꽃다운 나이에 강제로, 때로는 일본의 기망과 탐욕, 야욕으로 희생되신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애달픔은 반세기 넘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라며 앞서 가신 분들의 그 넋이 해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 아시아생명평화문예축전은 ‘스무 번째 일본군위안부 해원상생굿’과 ‘여성독립군 신명천지한마당’으로 진행됐다. 마하사 행사 이후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마당극 ‘세 소녀-진달래꽃길과 벚꽃유람선’ ‘세 소녀와 김복동 할매’, 현신 초망자굿이 진행됐다. 8월 13일에는 민주공원 일원에서 거리탈굿마당을 시작으로 민주공원 중극장에서 시와 악가무극, 마당극 ‘소녀상 일어서다’ 등이 펼쳐졌다.

“교직 생활에 위로”…마음자리 찾는 직무연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서
현직교사 20명 대상으로
‘마음이 웃는 교실’ 진행

“주먹다짐을 하는 반 아이들로 인해 교사가 된 걸 후회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료 교사들의 따뜻한 응원과 지혜로운 가르침 덕분에 힘을 얻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박00 교사

“이번 연수의 모든 과정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내 교실에 온 아이들도 귀한 손님으로 모시고, 진심으로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과의 2학기 시작이 걱정이었는데 보다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00 교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이 8월 8일부터 1박2일간 경내에서 개최한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 ‘마음이 웃는 교실’에 참여한 현직 교사들의 소감이다. 교사들을 향한 학부모의 갑질 민원 등으로 사회문제가 커지는 요즘, 불교적 관점으로 서로의 고충을 돌아보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직접 기획한 자리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8월 8일부터 1박2일간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 ‘마음이 웃는 교실’을 진행했다.

‘마음이 웃는 교실’에선 “교직 생활 30년 동안 받은 연수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평생 잊지 못할 연수”라는 현직교사 20명의 긍정적인 소감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마음선원을 창건한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토대로, 교사들의 마음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직 교사가 중심이 되어 이번 연수를 준비한 것이 주효했다.

대행선사는 생전 대중에게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 그 어떤 생각이 나오든, 내 근본 마음자리에서 들고나는 줄 안다면, 허허 웃으며 나온 자리에 다시 되돌려 놓을 수가 있다”고 설법했다.

이번 연수는 모든 것이 나오는 ‘거기’ 즉 ‘내면의 지혜로운 나’를 알아가고, 내면의 나와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부산지원 신도 중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했다. 스님, 교사, 한의사, 교수, 무용가 등 분야는 다르지만, 마음 작용과 마음의 묘미를 직접 체득해온 강사진들의 강의는 ‘마음이 웃는 교실’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일차 오전, 내 마음을 마주하는 ‘웃는 마음-내 마음 똑! 똑!’, 몸과 마음의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몸은 마음을 따라야’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소통과 리더십을 알아보는 ‘마음과 리더십’에 이어 ‘몸은 쉬고 마음은 열고’를 통해 공감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2일차 프로그램 ‘마음 소통으로 행복한 교실’에서는 보다 생생한 교실 현장의 사례들이 전해져 호응을 얻었다. 연수의 끝을 장식했던 ‘힐링공감 Talk’은 한마음선다회에서 준비한 정갈하고 멋스러운 찻자리로 감탄을 자아냈다. 교사들은 향긋한 차를 음미하며 연수에서 변화된 마음들을 나누며 함께 소통하고 공감했다.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대행 스님께서는 사람을 다루는 의사, 판사, 교사는 반드시 이 마음공부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며 “특히 교사는 생명을 품어 길러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도법사 혜벽 스님은 “우리들의 마음에는 ‘지혜로운 나’가 있으니 수업 전에 잠시라도 학생들과 함께 지혜로운 마음을 챙기면, 교사는 학생을,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삼광사, 신나는 어린이여름문화캠프

다양한 직업 체험도 제공



삼광사(주지 영제)가 8월 12~13일 경내에서 어린이 여름 문화캠프를 개최했다.〈사진〉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캠프는 물놀이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꿈을 찾기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제공했다.

삼광사 어린이여름문화캠프에는 어린이 1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입교식을 비롯해 6개 조로 나눠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어린이들은 유튜브 영상제작, 마술사, 댄서에 도전하는 등 다채로운 체험으로 직업을 경험했으며, 스님들과 함께하는 발우공양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삼광사는 VR체험, 공예미술, 응급구조체험, 미술심리상담 등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엄수빈(수미초6) 양은 “친구들과 신나게 놀 수 있어 정말 좋았다”며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신 주지스님과 선생님 모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회향식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씩씩해진 것 같다”며 “항상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린이 위한 물놀이 야단법석

율하선원, 포교 문턱 낮춰



김해 율하선원(주지 석산)이 어린이를 위한 신나는 물놀이 장으로 변신했다. 율하선원은 8월 13일 경내에서 ‘어린이 물놀이 야단법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사찰에서 놀며 불교와 친근할 수 있도록 돕고 여름철 시원한 물놀이로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도들은 율하선원을 찾은 어린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떡볶이, 피자, 샤인머스캣 등 간식을 준비해 풍성함을 더했으며, 주지 석산 스님과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등 봉사자들은 어린이들과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물놀이 현장에는 어린이 100여 명과 부모 200여 명 등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박상현(율하초5) 군은 “물놀이하는 스님이 개구쟁이 꼬마 같고 너무 신기했다”며 “맛있는 간식을 주셔서 더 신이 났고 즐거운 하루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석산 스님은 “선원에서 뛰어 놀며 좋은 추억을 갖는 것이 포교의 첫 걸음”이라며 “힘들 때 누구나 선원을 찾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광명사, 환경 위한 ‘녹색사찰’ 동참

부산불교환경연대와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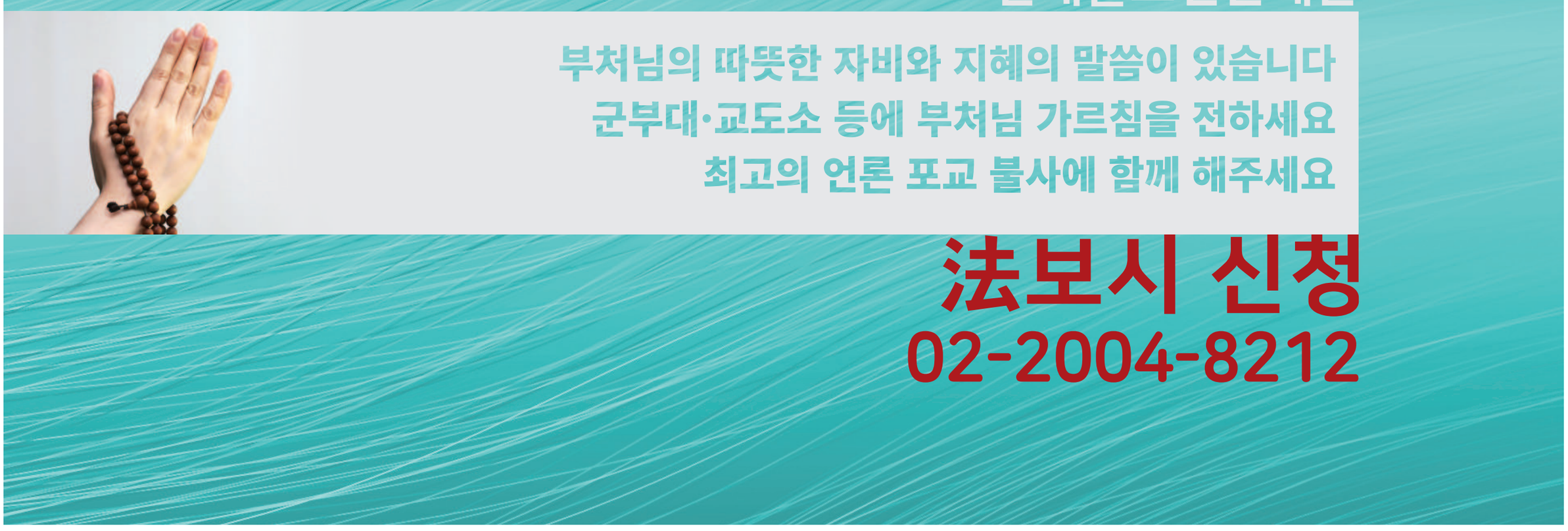
부산 대광명사(주지 목종)가 녹색사찰로 등록하고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사진〉

대광명사와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는 8월 12일 대광명사 대웅전에서 ‘녹색사찰 협약’을 체결했다. 대광명사는 앞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등 친환경 운동 실천에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하며, 특별 후원금을 전달했다.

주지 목종 스님은 “협약식 이후로 사찰 내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각 가정에서도 에너지 줄이기 운동을 실천해 달라”고 불자들에게 당부했다.

안도 스님은 “대광명사와 함께 협약을 맺게 돼 무척 기쁘다”며 “불자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 컵, 일회용 비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등을 실천한다면 환경 보살행이 모여 녹색의 불국토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잼버리 대원, 'K-불교 홀릭' 끝나지 않았다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
금산사 등 템플스테이
내소사서는 사찰 설화
의미 듣고 탄성 잇달아
금산사서 트로트에 열광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소사 묘향 스님이 대원들의 안전한 일정을 기원하는 오색실을 손목에 묶어주고 있다.



독일 대원이 참석한 금산사 내비둬 콘서트에서 국악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8월 11일 폐영한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이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와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한국의 불교문화와 사찰생활을 체험했다.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내소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40명의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은 황토색 템플스테이 복장으로 갈아입고 독일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 마크 교수의 안내로 한국의 전통사찰의 건축물에 놀라움을 표했다.

내소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묘향 스님은 먼길을 달려온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의 손목에 오색실 팔찌를 채워주며 한국에서의 예정된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하길 기원했다.

묘향 스님은 "부안에서 열린 잼버리 대회에 이어 내소사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소사에 머물면서 즐거운 상상만 하고 많은 위안을 얻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원들은 한국 사찰에서의 저녁 공양시간에는 생소한 한국의 채식문화에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뷔페식으로 제공된 음식을 모두 말끔하게 비워냈다. 이후 1배의 절을 할 때마다 염주 한 알을 꿰는 108대참회 합장주 만들기와 부채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샬럿 대원은 "오래된 사찰 건축물을 그냥 지나쳤을 수 있었는데 숨겨진 의미를 상세하게 알 수 있게 설명해주셨다. 아주 특별한 문화적 경험"며 "오래된 건물과 자연이 함께 만날 수 있어 더욱 좋았다"고 말했다.

길막 대원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찰에서의 생활 모습과 스님들의 오래된 수행방법에 경험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며 "한국은 도시나 시골이나 모두 자연과 오랜된 건물이 함께 있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여성대원은 스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며 삭발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과테말라 스카우트 대원 25명과 폴란드 대원 30명도 내소사를 들러 사찰에서의 생활을 체험했다.

김제 금산사에도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이 들러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힘든 대원들의 일정을 감안해 실내에서 일정을 소화한 대원들은 금산사에 도착해 간단한 사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미륵전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만세루에서는 한국의 사찰 생활에 대한 영상을 시청한 후 여찬 스님의 지도로 참선과 명상을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처영문화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긴 대원들은 한글 붓글씨 소원지 쓰기와 '내비둬 콘서트'에 참여했다.

내비둬 콘서트에는 젊은 국악인들이 출연해 가야금 연주, 판소리를 들려주며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도 가졌다. 또 가수 김용진이 출연해 K-트로트 음악을 선보였다. K-POP에만 관심을 가졌던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은 생소한 트로트 음악에 빠져 함께 춤추며 한국의 음악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도 가졌다. 다음날에는 대적광전에서 108배를 하며 염주를 만드는 체험도 진행했다.

마산 정법사 천진불들, 백중 맞아 음성공양 '눈길'

문수선음합창단, 백중 5재서 음성공양 법회

마산 초등생 25명으로 구성
8월 23일엔 승보공양 예정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가 불자 어린이들로 구성된 문수선음합창단을 본격 운영한다.

정법사 문수선음합창단은 8월 16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봉행된 백중 5재와 초하루 법회를 맞아 처음 음성공양을 사부대중에게 선보였다.

이날 문수 선음합창단은 '어머님의 은혜' '천개의 바람이 되어' 2곡을 음성공양했다. 이어 문수선음합창단장과 지휘를 맡은 소프라노 김소라 씨가 고산 스님의 시, 연울림 작곡의 '열반의 노래'와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바람이 머무는 날에'를 불렀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어린이 합창단원 한명 한명에게 꽃다발을 전하며 창단을 축하했다. 또 정법사 분다리카 합창단은 문수선음합창단의 첫 번째 공식무대를 축하하는 답가로 '제망매가' '무상게'를 불러주며 어린이 합창단의 창단을 축하했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최근에 불교유치원 나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선음 합창단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나오기 바란다"면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의 불성의 씨앗이 심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5일 어린이 포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의 뜻에 따라 창단된 문수 선음합창단은 마산지역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 25명으로 구성됐다.

창단 후 매주 토요일마다 지휘자 김소라 선생과 반주자 김아림 선생의 지도로 배려와 협력을 배우고, 어울림의 소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의 결실을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새로 창단된 정법사 문수선음합창단이 8월 16일 백중 5재를 맞아 처음으로 음성공양을 선보이고 있다.

문수선음합창단은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란 뜻으로 아름다운 동요는 물론 찬불가를 배우고 부르며 불성을 씨앗을 틔우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법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유치원인 '대자유치원'을 운영하며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백중기도기간 중에는 前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7월 26일 2재 때는 월정사 교무국장 자현 스님의 초청 법회가 봉행됐고 3재와 4재 때는 '금강경' 독송 정진에 이어 문수선음합창단의 음성공양 등이 이어졌다. 8월 23일 봉행되는 6재 때는 스님들에게 의약품 등을 보시하는 승보공양이 봉행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수자령 천도법회 봉행

8월 12일 극락보전 앞마당서



지장기도도량 고창 선운사 도솔암(감원 성본)이 우란분절을 앞두고 수자령 영가와 태아 영가 천도재를 봉행했다. 〈사진〉

8월 12일 선운사 도솔암 극락보전 앞마당에서 봉행된 수자령 태아영가 천도재는 혜정 스님을 비롯한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불교전통방식에 따라 봉행됐다.

이날 천도재는 시련, 대령, 관욕에 이어 장학금 전달 관음무, 연화무, 상단불공, 영가시식, 소전의 순으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숨결 불교문화무용단(단장 이미정)은 관음무, 연화무, 수자령가 진혼무 등 불교창작무용을 선보였다.

도솔암 감원 성본 스님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세상을 빛을 보지 못한 수자령가와 낙태아 영가의 극락왕생과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업장소멸, 병고악난, 사건 사고 없이 건강과 행복, 소원 성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인연있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모든 영가들과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티베트문화학술연구원 설립

8월 14일 현판식… 본격 학술활동 시작



한국과 티베트의 문화 학술교류를 위해 한국티베트문화학술연구원이 8월 14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사진〉

이날 설립 현판식에는 (재)정토사관자재회 이사장 능행 스님, 게셰 체링 노르부 인도 로셀링 사원 불교 철학 교수, 동화사 승가대학 무애 스님 등 사부대중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립된 한국티베트 문화학술연구원은 지난 2019년부터 (재)정토사관자재회 산하 단체로 한국 티베트 문화교류와 번역 및 도서 출간 등의 활동을 해오다 올해 8월 울산광역시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게 됐다.

향후 연구원은 △한국-티베트 문화연구 인력 배출 △불교 경전 한글 번역 출판 활성화 △한국-티베트 문화 관련 대중교육 등 한국과 티베트의 문화 학술 교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세종전통문화체험관, '건강한 먹거리' 특강

유정희 이사장 초청해 진행



기후위기시대, 건강한 먹거리를 생각해보는 강연이 열렸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원묵)은 8월 15일 '기후 위기의 시대, 건강한 먹거리'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 강사는 유정희 자연음식문화원 이사장이 맡았다.〈사진〉

이날 유정희 이사장은 "음식이 인간을 단순히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정말 올바른 식생활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대중 강연했다.

강연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이번 특강을 듣고 음식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 수 있어 유익했고, 9월 사찰음식체험에도 참여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특강 이후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오는 9월 유정희 이사장을 사찰음식체험 강사로 초청해 '한그릇 음식과 디저트'를 주제로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044)850-3100

신성민 기자

원 비담당 금산대선사 적
원로장 49재 회향식

일시 불기 2567년 8월 25일 (음 7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경남 김해 금강사
김해시 가야로 405번길 73-33 분성체육공원 내 호국성지

공동주최 : 범불교 종단협의회,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주 관 : 원로장 49재회향 봉행추진위원회

봉행위원 정오. 성각. 제원. 법장. 법융. 대붕. 자광. 경천. 평산. 혜운. 혜명. 지일. 선명. 청호. 석경. 법성. 법현. 대공. 정념. 혜광. 청운. 정성. 보혜. 보성. 대연 김성후. 왕호. 이대각심. 오도석. 이영산. 김율. 박용재. 자명심

자문위원장 (금산문도회 맏상좌 자광스님)
봉행위원장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집행위원장 (삼보조계종 사무총장 평산스님)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한 땀, 한 땀씩…日, 가사 재현 프로젝트 눈길

8세기 조성된 '쇼토쿠 태자 가사' 재현

박영빈 객원기자

대중 1000여 명 전통방식 따라
수 놓듯이…조성 기간 1년 예상
주요 법요 · 기도회서 사용 예정



요진스님의 설명에 따라 가사에 바늘땀을 놓는 참가자들.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출가수행자가 반드시 받아 지녀야 하는 법의인 가사. 최근 일본에서 8세기경의 유물인 가사를 대중들의 힘으로 재현 복원하는 불사가 시작돼 화제다. 8월 8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천년고찰 스마데라(須磨寺)에서 진행하는 '쇼토쿠 태자 분소의 재현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지난 7월 18일, 스마데라에서 시작된 가사 재현 불사는 1년을 기한으로 시작됐다. 스마데라의 사무장 코이케 요진 스님은 "불교에서는 대중이 모두 합심하여 한땀 한땀 가사를 꿰매는 것은 부사의한 공덕이 있다고 전한다"며 가사 조성의 공덕을 설명했다.

이번에 조성될 가사는 고대 일본불교의 중요한 인물인 쇼토쿠 태자(聖德太子)가 불경을 강의하고 수행할 때 수했다고 전하는 분소의 가사다. 현존하는 가사로는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8세기경의 유물로 가로 2.6m, 세로 1.4m의 7조가사로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이 가사는 실제 분소의를 상징하여 다양한 색으로 염색된 삼베조각들을 이어 꿰맨 것으로 주변과 네 귀퉁이는 푸른색의 삼베가 덧대어져 있다.

요진 스님은 "이번 가사 재현 프로젝트는 평소 존경했던 후쿠시마 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불사라면서 "손으로 직접 가사를 지으시던 스님께서 일생의 발원으로 분소의를 재현하기를 원하셨으나 지난 1월 갑자기 입적하셨다"며 불사가 시작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후 요진 스님은 재현 프로젝트의 관계자로부터 "후쿠시마 스님께선 3벌의 분소의 가사를 조성하고, 그 중 한 벌을 요진 스님께 주고자 하셨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재현 프로젝트를 이어 받기로 결심했다.

요진 스님은 분소의와 나라시대 복식에 익숙한 나라국립박물관의 미타 카쿠유키 주임연구원의 협력을 얻어 실제 분소의 가사와 동일한 색과 모양을 재현한 삼베를 20장 가량 직조했다. 스님은 "가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천을 짜는 실과 염색한 염료 등은 모두 경내에서 전지한 벚나무의 껍질이나 잎, 또 진언밀교의 성지인 고야산의 삼나무 등에서 얻었다"고 밝혔다. 요진 스님과 미타 연구원은 "전통방식과 고사를 따라 한 사람씩 각각 몇 땀을 놓는 식으로 가사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완성엔 적어도 1000명의 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스마데라에서 시작된 첫 재봉회에 참가한 한 여성 불자는 "이곳에 와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가사를 꿰맸다"며 소감을 전했다.

스마데라 측은 이후 바늘땀을 놓는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열어, 1년에 걸쳐 가사를 조성할 예정이다. 완성된 가사는 이후 스마데라에서 봉행되는 기도회나 중요한 법요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요진 스님 "마음속에 담긴 말이나, 소중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담아 놓은 바늘땀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접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사 재현 프로젝트에 많은 대중의 동참을 호소권선했다.

불교 인권 운동가 라니 얀 얀, 글로벌 反인종주의상

美 국무부, 세계 원주민의 날 기념
아마존 출신 원주민 지도자 등 6인



2023 반인종주의 챔피언상을 수상한 라니 얀 얀(사진 왼쪽).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에서 원주민과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불교 사회운동가 라니 얀 얀(Rani Yan Yan)이 글로벌 반인종주의상을 받았다.

8월 10일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door)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전날 세계 원주민의 날(8월 9일)을 맞아 사회 운동가 라니 얀 얀에게 2023 반인종주의 챔피언상을 수여했다.

라니 얀 얀은 치타공 지역에서 불교도 소수 민족인 차크마(Chakma) 공동체를 위해 반인종차별 캠페인을 벌이는 불교 사회 운동가다. 때문에 소수 민족을 반대하는 부류에 의해 때때로 공격을 받기도 한다. 얀 얀은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의 외교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했고, 아시아 태평양 포럼에서 페미니스트 법률 이론 및 실천을 공부했다.

미 국무부는 "얀 얀은 차크마 공동체의 리더로서 각종 차별과 폭력, 혐오 등으로부터 차크마 주민들을 보호한다"며 "얀 얀의 직접적인 운동 덕분에 국제사회는 방글라데시의 토착민 공동체와 소수 집단에 대한 폭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얀 얀은 기후 탄력성과 성평등에 대해 국내 및 국제 조직에 자문을 제공하고 토착 여성의 정치 참여를 연구했다. 또 다양성과 사회적 포용 관련 청소년 활동가를 멘토링하고 있다"며 "엄청난 차별과 심지어 폭력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는 목소리로 동등한 권리와 정의를 옹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얀 얀은 이날 시상식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단체 및 보안군에 의한 지속적인 토지 수탈, 방화 및 지역 사회 공동 공격, 원주민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가해자 면책 등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소수 민족 중에서도 여성들의 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전 세계의 다른 인권 옹호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정의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인종 차별과 구조적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연대해 차세대 리더와 챔피언을 강화하고 고양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브라질 아마존 출신의 원주민 지도자인 카리 구아자자라(Kari Guajajara), 페루인의 인정과 권리를 위해 40년 이상 투쟁한 오스왈도 빌바오 로바톤(Oswaldo Bilbao Lobatón), 반인종차별 운동가 싸디아 모스바(Saadia Mosbah), 네팔의 인권 운동가 살스와티 네팔리(Sarswati Nepali), 인권 변호사 빅토리나 루카(Victorina Luca) 등이 얀 얀과 함께 2023 글로벌 반인종주의 챔피언상을 수여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 라마, 자연재해 세계 위한 기도

8월 10일, 홈페이지서 공식 메시지
산불·폭염 등 이상기후 심각성 지적
고통 받는 이 위한 연대 촉구하기도



달라이라마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에 전세계의 연대와 기도를 호소했다.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극심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달라이라마는 기후위기 영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8월 11일 국제 불교뉴스 전문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의 성명을 인용해 달라이라마의 메시지를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10일 발표된 성명에서 "올해 우리는 세계 여러 곳에서 충격적인 일련의 자연재해를 목격했다"며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홍수, 산불, 허리케인 발생으로 재산과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비극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현재 캐나다와 그리스는 모두 기록상 최악의 산불을 보고했으며, 호주와 칠레도 올해 초 극심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 남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지역이 이번 여름에 극심한 폭염을 기록했고, 많은 지역이 극심한 계절성 폭우와 돌발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났다"면서 "달라이라마의 기도와 메시지는 이에 대한 연대를 촉구한다"며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현재 과학자들은 올해 지구 해양이 기록적인 온도상승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과학자들은 이는 해양 생태계의 위험과 지구의 기후를 포함한 전반적인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징조라고 경고했다. 지난 7월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 페테리 탈라스 공식 성명을 통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 지면서 점점 더 자주 발생하는 극한의 기후변화는 인간과 지구 생태계는 물론 경제, 농업, 에너지 및 물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가능한 한 빠르고 심도 있게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성명에서 이러한 이상기후로 사상사고를 입은 이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 모두는행복을 원하고 비극을 피하길 원하는 동일한 인간"이라면서 "인류가 하나라는 맥락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돕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며 세계적인 연대와 기도를 호소했다. 달라이라마는 특히 "최근 중국 북부와 일부 티베트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재산과 지역 생태계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 구호활동에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중국 측에 제안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인도에 14m 높이 석가모니 부처상 조성

MIMC 데바찬 캠퍼스에
"세계 평화 영감 줄 것"



인도 레 지역에 14m 높이의 석가모니 부처상이 조성됐다.〈사진〉

8월 15일(현지시간)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에 따르면 이달 초 마하보디국제명상센터(Mahabodhi International Meditation Centre, 이하 MIMC)의 데바찬 캠퍼스에 위치한 세계평화부처 공원에서 14m 높이의 석가모니 부처상 조성 법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 세계 원로 라마승 등 500명이 참석했다.

MIMC 설립자이자 회장인 비히쿠 상하세나(Bhikkhu Sanghasena) 스님은 "새로 조성된 동상은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많은 세대가 불법의 길을 따르도록 영감을 줄 것"이라며 "갈등과 혐오의 시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널리 전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하세나 스님은 지난 2021년 라다크 국경 지역에서 코로나19 구호활동 및 정서적 상담과 평화 캠페인 등을 벌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현대불교신문
구 독 안 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

‘K-곡선 미학’ 진수 담은 한국화를 만나다

문경문화회관 30주년 맞아
임무상 화백 특별전 개최
9월1일부터 21일까지 진행
금강산도 등 주요작품 선봬
“30년 작가 인생 회고 의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1990년대 초반 등장했던 캐치프레이즈로, 광고 문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30년이 지난 현재, 저 명제는 현실이 됐다. K-팝은 미국 빌보드차트에 1위에 올랐고, K-드라마는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 한국의 곡선 미학을 세계에 알리던 작가가 있다. 바로 임무상 화백. 그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다수의 초대전을 가졌고, 특히 이탈리아에서 거장을 의미하는 ‘마에스트로’의 칭호를 받았다. 현재에도 프랑스 파리 미젠 갤러리, 스위스 헤르망스 제네바 갤러리에서 전속작가로 활동 중이다.

K-미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왔던 임무상 작가의 작품세계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경문화예술회관은 개관 30주년을 맞아 임무상 화백 특별전을 개최한다. 9월 1일부터 21일까지 회관 전시실에서 열리는 특별전은 향토색 짙은 심미감을 바탕으로 한국의 풍광을 화폭에 담아 온 임 화백의 회화 세계를 조망하는 자리다.


산,소나무,달, 73x58cm, 한지,먹,천연혼합채색, 2019.

임 화백의 회화는 ‘곡선 미학’과 ‘공동체 정신’으로 귀결된다. 이는 임 화백이 나고 자란 문경의 초가와 마을 공동체에 기반한다. 이에 대해 임 화백은 이 같이 술회한다.

“내가 태어난 고향마을의 따뜻한 이웃이 ‘공동체 정신’의 바탕이 됐고, 두루뭉술하고 정겨운 초가지붕에서 보여지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곡선들은 나의 ‘곡선 미학’의 원천됐다. 이웃 간에 담을 허물고 콩 반쪽이라도 나누어 먹던 인정 넘친 이웃이 있었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미풍양속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배어있는 까닭이다. 린(隣)은 어울림의 미학이다. 참으로 린(隣)은 원융한 것이어서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실, 임 화백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네 번째 개인전 ‘隣(Rhin)-곡선공동체의美’를 통해 ‘린 시리즈’를 탄생시키면서다. 이를 통해 임 화백은 ‘공동체 정신’과 ‘곡선 미학’을 담은 작품들을 대중에 선보였다.

2005년 금강산을 탐방한 이후 임 화백은 자신의 조형언어인 ‘곡선 미학’을 접목해 새로운 금강산도를 그리는데 몰두했다. 3년을 작업실에 파묻혀 새로운 형상의 금강산도 60여 점을 그렸고, 2008년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임무상 금강산전’을 열어 호평을 받았다. 이후에도 “자연은 모두 곡선”임을 설파하며 ‘산, 소나무, 달 그리고’ 테마를 주제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임 화백은 “금강산도에 이어 탄생된 ‘산 소나무 달 그리고’ 테마 시리즈를 통해 자연은 곡선임을 가슴으로 체득했다. 이 또한 린(隣)과 다름 아니며, 인간과 자연은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달았다”면서 “따라서 내 작업은 시대의 화두인 친환경 · 더불어 살기 슬로건에 부응하는 작업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전에 출품한 작품들은 지난 30년 동안 작업해온 작품들 중에서 개관 30주년기념 특별전에 걸맞게 작품을 선정해 전시에 임했다”면서 “이번 특별전을 통해 문경 시민과 국민들이 잊었던 향수를 느끼고,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제10회 신작찬불가 작곡부문 공모

오는 9월 11일까지 접수

조계종이 불교음악과 찬불가 대중화를 위한 신작 찬불가 작곡 부문을 공모한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탄원)는 “오는 9월 11일까지 ‘제10회 신작찬불가 작곡부문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관단체는 조계종 불교음악원이다.

작곡부문 공모는 불교음악원에서 공고하는 가사로 작곡된 작품만 지원 가능하며, 별도의 작사는 조계종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작곡한 곡들은 불교적 사상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창작곡이어야 하며, 전통불교 음악의 성격을 띤 선율을 활용해야 한다. 작품 수는 1인 1작품으로 제한되며, 피아노 반주 첨부는 필수다.

응모하려면 응모신청서와 작곡계획서, 악보, 음원파일USB 등을 첨부해 우체국 등기나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작품들은 심사 후 작가 부문 4명, 작곡 부문 4명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선정 작품은 오는 10월 열리는 불교음악상, 신작찬불가 시상식에서 초연된다. (02)3218-4866

신성민 기자

좋은 벗 풍경소리 ‘풍경소리 56집’ 발매

어린이 찬불가로 불음을 전파하는 좋은 벗 풍경소리(대표 이종만)가 새로운 창작 찬불가 앨범을 발표했다.

2023년 여름을 맞아 발표한 ‘풍경소리 56집’은 △‘야래향 꽃섶’ △‘바람소리 너무 크다’ △‘부처님 함께 걸으시네’ △‘부처님이 오셨네’ △‘부처님은 맑은 거울’ △‘님의 사랑으로’ △‘불자라서 행복합니다’ 등 총 7곡이 수록됐다. 특히 이번 앨범은 대부분의 노래를 어린이들이 직접 노래했고, ‘불자라서 행복합니다’는 트로트가수 배아현이 리메이크해 눈길을 끈다.

한편, 좋은 벗 풍경소리의 찬불 창작곡집은 1996년을 시작으로, 매년 여름, 겨울 노래집을 발표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전등사 · 삼랑성 풍경, 카메라에 담아요

전등사, 제1회 삼랑성사진공모전 개최
9월 17일까지 접수…수상작 경내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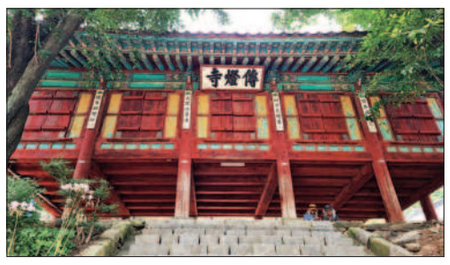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사찰인 전등사와 단군이 세 아들을 시켜서 쌓은 삼랑성의 사계(四季) 풍경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이 열린다.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는 “9월 17일까지 제1회 삼랑성역사문화사진공모전을 공모한다”고 8월 14일 밝혔다.

이번 사진공모전은 삼랑성의 역사적 중요성을 공유하고 전등사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개최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연령, 학력, 지역, 국적 등의 제한이 없다.

삼랑성역사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규격 심사를 거친 뒤 1차, 2차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수상자는 삼랑성역사문화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이번 사진전에는 대상 1명 200만원, 최우수상 2명 100만원, 우수상 4명 50만원, 기록상 10명 10만원 등 총 17명에게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작은 삼랑성역사문화축제 기간 중 전등사 경내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진전의 심사기준은 시각의 독창성, 주제의 전달성, 작품의 일관성, 기록의 충실성 등이며, 작품규격은 jpg 확장자를 갖는 이미지를 제출하되 장축 기준은 3,000픽셀 이상의 해상도를 갖춰야 한다.

파일 용량은 3MB 이상 10MB이하로 하며, 이메일(samlangseong@gmail.com), 웹하드(webhard.co.kr -아이디:mgb90/패스워드:1230) 접수만 가능하다. 응모 시 출품지원서와 사진 원본 파일은 필수이며, 출품료는 없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현대인에게 가장 친숙한 대중예술 매체인 사진으로 표현한 삼랑성과 전등사의 모습들이 기대된다”며 “이번 공모에서 다양한 사진 작품이 응모돼 민족의 얼이 깃든 삼랑성의 역사적 가치와 최고 역사를 자랑하는 전등사의 문화재적 가치가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만해사상실천연합, 제8회 만해평화문학축전

오는 8월29일 심우장서 개최
다례재, 학술세미나 등 진행

만해 한용운 스님<사진>의 정신과 홍포를 위한 축전이 개최된다.

만해사상실천연합(이사장 홍파)은 8월 28일 서울 성북동 심우장 일원에서 ‘제8회 만해평화문학축전’을 연다.

‘심우장과 만해 한용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전에서는 만해 스님이 55세부터 입적할 때까지 주석했던 도량인 심우장 시절 활동상에 대해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부 행사로는 ‘만해 탄신 144주년 다례재 및 기념식’, 2부 행사로는 ‘심우장과 만해’ 주제 학술세미나, 3부 행사로는 ‘심우장과 만해문학의 향연’이 진행된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가 ‘만해 독립운동의 본질과 방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김광식 前동국대 특임교수가 ‘심우장의 역사 재조명’을, 김지은 성북구청 학예사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현황과 추진방안-서울특별시 성북구 만해 한용운 심우장을 중심으로’를 각각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



성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장성우 동국대 불교학부 강사가 참여한다.

‘심우장과 만해문학의 향연’에서는 백원기 동방대학원대 석좌교수의 ‘만해의 심우장 시대와 문학의 특징’을 비롯해 마종옥 시인 등의 만해 시 낭송이 이뤄진다.

만해사상실천연합은 “심우장 시절의 만해 스님은 수행에 전념하면서도 비밀리에 민족독립운동을 확산해 나갔으며, 불교대중화 운동과 사회계몽 운동도 끊임없이 전개했다”면서 “이번 축전 행사는 심우장에서 만해 스님의 삶의 자취와 문학 세계, 심우장의 성역화 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만해사상실천연합은 오는 9월 12일 ‘만해의 길 순례행사’를 연다. 신성민 기자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청량국사화엄경소초』 1~41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4차분 11권 출간!

이 시대 화엄종주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제11 정행품부터 현수품, 승수미산정품, 수미정상게찬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공덕품, 명법품, 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게찬품, 제21 십행품까지 출간!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낱권 판매 가능)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의 단청을 그리다!

적멸보궁 단청만다라 컬러링북 1 2

통도사, 중대사자암, 봉정암, 법흥사, 정암사 등 5대 적멸보궁에 그려진 아름답고 성스러운 단청을 54컷의 일러스트로 만들어 누구나 색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정희 지음/국배판/각권 64쪽/각권 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6~8/2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성삼취경과 현겁천불명경	쫑카파/석혜능	하늘북	6	매일 108배 신 자비도량참법	행복문화연구소	이층버스
2	중론:산스끄리뜨 게송의 문법 해설을 겸한	용수/청목	오타쿠	7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불교신문사
3	초학자와 함께 하는 계율공부	정현/서주	담앤북스	8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하늘호수
4	은정희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의	은정희	예문서원	9	한글 아함경	고익진	담마아카데미
5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10	초기불교 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名士書評

활생 문명에서 길을 찾다



활생 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운주사 펴냄
2만5000원



천안 각원사 청동대불.

대한불교진흥원은 불교학 진흥을 위해 '대원불교학술총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이는 2020년부터 시작한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 사업의 결과물들로, 2022년 첫 번째 책이 나온 이래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최근에는 7번째 책인 〈활생 문명으로 가는 길〉(김규칠 저)이 발간됐다.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이한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경희대 석좌교수)이 보내왔다. 이에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활생 문명은 자연 착취의 문명서
잠재력 발휘 문명으로 전환 의미
불교 공·연기 사상 현대적 조명
이를 통해 현대문명의 길 모색해

현대 과학기술문명은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간이 잘 살기 위해 구축한 문명이 오히려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고,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지점에까지 이르렀다. 기후변화만 해도 그렇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공장이나 자동차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에 의해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면서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자연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가뭄과 홍수, 이상 고온과 산불이 반복되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역에 따라 사막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농작물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어떤 질병이 유행할지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전쟁의 위험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멸의 두려움 때문에 핵전쟁까지는 아직 감행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언제든 큰 전쟁으로 번질 요인들을 안고 있다.

인류의 진보를 상징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마저 흔들리고, 사회 내의 빈부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는 미국마저 포퓰리즘에 휩싸여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

왜 이런 문제들이 표출되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인류의 비극과 지구 생태 환경 위기를 단순히 인간 욕망과 기술 문명이 아니라, 더욱 근원적인 세계관과 '생산 편향적 시스템'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이 책 〈활생 문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 책은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불교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1부 '문제의식과 탐구의 여정'에서 저자는 '연기적 현실 세계'에 주목한다. 연기적 현실 세계란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움직임이고 흐름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고정된 실체나 관계의 종합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진화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2부 '역사와 문명에 대한 성찰'에서는 근대 이후 세계의 복합화 과정과 현대 전환기의 복합적 과제를 해부한다. 그리고 이 복합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구적 대안모색들, 사회민주주의, 포용적 제도론 등을 검토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3부 '생각하는 사람들과 지구촌 시민에게 드리는 제언'에서 저자는 그의 독창적인 사상을 전개한다. 바로 대지와 현대 사회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 '활생 문명'이 그것이다. 대지는 온갖 생명체의 삶의 기반이며 자기 조절과 자기 조직의 기능을 가진, 인류와 더불어 지구 운명의 공동결정권을 행사하는 당당한 행위자이기도 하다.

활생 문명은 자연 수탈, 자연 착취의 문명에서 잠재력 발휘 문명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살생문명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이다. 공성과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 대지와 분리될 수 없다. 불이(不二)다. 현대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는 세력들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근본 전략과 맞물려 있다. 이 체제는 물리력을 기반으로 생산 위주 시스템을 강행 발동하여 자연과 생명을 종속적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리하여 대지와 대지의 생명체들은 절단과 남획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금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인내의 한계에 달한 대지가 던지는 경고다. 이런 경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활생 문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저자가 제시하는 방안은 생산 편향 일변도의 시스템을 생성 순환 과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과 권력 유지만을 추구하는 생산 시스템과 우주 대자연과 대지의 연기법대로 순리를 따르는 생성 시스템은 서로 극과 극이다.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대지는 연기적 원리에 의해 대지를 구성하는 요소들 자체이며 대지의 틈에서 자란 뭇 생명들의 흙과 물과 대기의 구성 결과이다. 대지는 원천적 생명 공동체며, 이를 살려가는 것이 인류의 책임이다.

활생 문명은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신주의도 아니고 공동체적 사회주의도 아니다. 어떤 개념이나 표어로 틀지어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자유를 고도화시키고 공익성 목적의 고가치 시장을 창설하는 것이다. 생태 인문 운동과 사회문화 운동을 연결하여 생동하는 평화혁명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불교의 공성과 연기 사상을 현대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기초로 현대 문명의 길을 모색한 이 저서를 읽으면서, 나는 때로는 현대 불교계의 큰 별이었던 휴암(休庵) 선승의 음성을, 때로는 용수 보살의 법문을 듣는 듯했다. 불교가 현대 문명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이한구
(경희대 석좌교수,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구원과 욕망의 교차로, 실크로드를 가다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 3
강희정 지음
사회평론 펴냄 / 2만 5000원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시리즈, 즉 '난처한 시리즈'의 세 번째 여정이다. 서양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 시선으로 미술사를 새로 쓰고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끈다.

3권은 동서 교역의 주 무대였던 실크로드에서 출발한다. 이 책의 주요 배경인 타클라마칸 사막은 실크로드 가운데서도 가장 험난한 구간으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 불린 땅이었다. 실크로드 상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사막을 건넜으며, 중개무역을 통해 큰돈을 벌었다. 부유한 실크로드 상인들, 실크로드 도시를 차지한 권력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사원 조성에 앞장서는 등, 적극적으로 종교에 후원했다. 인도의 석굴사원, 서역의 불교 미술이 어느 순간 그토록 화려해진 데는 이들의 강력한 후원이 있었다. 실크로드의 경제적 발달이 미술의 발달을 가져왔던 것이다.

한편 아시아의 구법승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 인도로 향했다. 후에 고국으로 돌아간 구법승들이 불교를 전파하며 불교 미술 역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 상인의 부를 향한 욕망, 구법승의 구원을 바란 열망은 실크로드 미술을 만든 원동력이었다.

실크로드는 동양과 서양, 유목 민족과 정착민, 세계와 세계가 끝없이 충돌하는 땅이었다. 이 길에서 미술은 끝없이 변화했으며,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미감을 품은 채로 경계의 안팎을 넘나들었다. 실크로드 미술은 어떤 시대, 어느 지역의 미술보다 역동적이었고, 동서양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를 통해 이제 그 광대하고 변화무쌍한 미술을 발견해보자.

임은호 기자

오행설 바탕으로 아름답게 장엄한 단청들



적멸보궁 단청 만다라 컬러링북 ①②
김정희 지음
운주사 펴냄 / 1만 3000원

궁궐이나 사찰의 건축물에 아름답게 색칠한 것을 단청이라 한다. 이 책은 그 중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의 단청을 일러스트화 해서 그린 단청 컬러링북이다.

영축산 통도사를 비롯해 오대산 중대 사자암, 설악산 봉정암,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가 '5대 적멸보궁'에 해당한다. 진신사리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불자들에게는 순례와 참배의 주요한 대상이 돼 왔다. 단청은 주로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5가지 색상인 오채(五彩)로 구성되며, 단청의 아름다움에는 '우주만물의 에너지가 서로 어우러져 긍정적인 기운을 자아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일반적으로 만다라 이미지는 특정 시공간을 초월하여 신비로움과 성스러움을 표현하는 형태로써 종교적 상징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불법의 모든 덕을 두루 갖춘 경지의 상징을 영상화해서 표현하는 그림이나 기호를 말한다.

만다라는 인간의 내적 균형을 이루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 심리적·신체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연령층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책 1, 2권에는 각각 27개의 단청만다라가 실려 있다. 각 단청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사경할 수 있게 했다. 만다라 그림 밑에는 당시의 생각이나 느낌 혹은 발원을 간단히 적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사경하고 적멸보궁의 단청만다라를 색칠하다보면 일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힘을 얻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성숙된 개인으로 발전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임은호 기자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극단의 시대, 해법은 '불이법문'



지금,여기에서 깨닫는 유마경 강의
성태용 지음
북튜브 펴냄
1만5000원

대승불교 재가주의 담은 경전
한학자 성태용 교수가 해설해
"위대한 긍정 가르침 담겨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중국 돈황 벽화에 그려져 있는 유마 거사의 모습.

유마 거사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선지식 중 독특한 위치에 있다. 그가 등장하는 〈유마경〉에서 유마 거사는 출가 중심의 부파 불교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대승불교의 참다운 뜻을 밝히고 있다. 실제 유마 거사는 경전에서 비야리성 부호이기는 하지만 재가불자로서 불교의 높은 깨달음을 성취하고 청정한 보살행을 실천해 재가불자들의 이상형으로 꼽힌다. 실제 '시불(詩佛)' 이라고도 칭해졌던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는 유마 거사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기도 했다.

대승의 정신이 잘 드러나는 불교 경전 〈유마경〉을 한학자 성태용 前건국대 철학과 교수가 해설했다. 성 교수는 자신의 책 〈지금, 여기에서 깨닫는 유마경 강의〉에서 〈유마경〉이 자신이 불교와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시각을 제공했음을 고백하며, 이 경전이 강조하는 대승불교 정신이 작금의 극단적 진영논리를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마경〉의 핵심 가르침인 '불이법문(不二法門)' 에 있다. 재가자와 수행자를 나누고, 더러운 속세와 청정한 불국토를 나누는 것이 '둘(二)' 로 나누는 분별이라면, 우리의 일상이 곧 깨달음을 이루는 바탕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가 바로 불국토를 이루는 근본임을 아는 것이 바로 '불이법문' 의 가르침이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났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는 것이 소승의 이상이자 둘로 나누는 생각이라면, '연꽃은 진흙 속에서만 피어난다는 것' , 다시 말해 진흙(속세의 삶)이 없다면 연꽃(깨달음)도 피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삶에 대한 위대한 긍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유마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둘로 나누는 분별과 내 것만이 옳다는 집착을 부수는 불이법문의 지혜와 상대를 배제하기보다 이해하려는 긍정의 정신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바라 볼 때, 양극화와 폭력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유마경〉은 지금 우리 세상, 우리 불교계의 현실에 가장 필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마경〉의 핵심사상이라 할 수 있는 '둘이 아닌 진리의 문'(不二法門)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한 치의 용서도 없는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유마경〉의 가르침은 이 시대 새로운 대승운동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유마경〉에는 또한 위대한 긍정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 머리말 中**

세상을 구하는 '자발적 가난'



신자유주의와 상생의 불교경제학
김광수 지음
운주사 펴냄
2만원

역사적으로 불교, 특히 선불교에서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금기시해왔다. 그래서 불교는 세속을 떠난 은둔적이고 신비적인 이미지로 인식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서 세상에 대한 봉사, 복지, 참여 비중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 책은 불교의 이런 태도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오히려 불교야말로 사회문제와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져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말씀과 사상, 특히 경제사상에서 찾아내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살행에 바탕을 둔 자발적 가난에 의한 공동체 운동도 제시하고 있다.

책 전반부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다뤘다. 시장경제,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의 존속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 '시장자본주의의 문제점' 을 첫 머리로 삼았다. 저자는 무엇보다 지구 파괴, 심성 파괴를 초래하는 것으로 자본의 무한대적인 이윤추구와 그로 인한 과잉생산 및 소비, 이에 따른 무한경쟁과 실업문제를 꼽는다.

제2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불교경제 시각에서 고민한 여러 현인들의 사상을 모아 정리했다. 슈마허의 불교경제, 간디의 기계화와 개발주의, 이노우에 신이치의 지구를 구하는 불교경제 등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 인간의 심성문제를 짚는다. 결국 과잉생산과 소비를 가능케 하는 원인은 인간의 소유욕, 소비욕에 있으며, 그것을 잘 다스리지 않는 한 시장자본주의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제4장은 바람직한 대안을 여러 각도에서 논구해본 것이다. 경제문제는 사회집단의 문제지만 그 해결은 사회 제도적인 방법과 개인의 자발적 가난(소욕지족)이라는 양 날개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고삐 풀린 시장경제의 폐해는 제도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개인의 사익추구가 스스로 제어되고 자발적 가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국 불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제5장에서는 소욕지족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으로서 수행 공동체 운동을 제안하고, 기존 사례들을 모아 제시했다.

이처럼 저자는 불교가 단순히 개인적 수행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세상과 함께 호흡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불교인은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관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을 열어나가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새로 나온 책

과학 · 영성 쟁점 살피다



당신이 우주다
디팩 초프라, 미나스 카파토스 지음
조원희 번역/김영사 펴냄
1만8800원

하버드대 의학박사이자 세계적인 영성 멘토 디팩 초프라가 저명한 물리학자 미나스 카파토스와 함께 새로운 책으로 돌아왔다.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당신이 우주다〉는 인간 의식의 신비와 우주의 기원, 시간, 공간, 물질, 그리고 관찰자의 의미에 관한 9가지 궁극적인 질문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현재 과학과 영성의 최전선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돼 있으며, 이러한 연결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대담하고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

조금 새로운 '도덕경' 해설서



지금이대로 완전하다
김기태 지음
침묵의 향기 펴냄
1만5000원

여느 해설서들과 달리 이 책은 〈도덕경〉을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마음에 관한 이야기로 읽는다. 도덕경은 다른 위대한 경전들처럼 가장 깊은 존재의 진실을 전하는 경전인데, 그 진실이란 결국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도덕경〉을 해설하고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원효 대사의 이야기, 안데르센 동화, 선사들의 어록 등을 곁들이며 다채롭게 설명한다. 또한 지은이 자신이 살면서 겪은 경험들, 그동안 그의 도덕경 강의를 통해 자유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흥미진진하게 읽힌다.

우리 장승문화 기원 탐구



장승탐구
김동관 지음
아루나 펴냄
5만원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인 장승과 돌하르방, 서낭당의 유래와 기원을 탐구한 책이다. 특히 석장승과 돌하르방에 있는 '혀' 를 통해서, 유사한 세계의 도상을 비교, 탐구하고 그 기원을 추적한다. 장승이나 돌하르방의 옛 사진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비교' 방법으로 지금의 석장승과 돌하르방도 과거 어느 때엔 '혀' 가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의 돌하르방도 육지의 석장승과 같은 뿌리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며, 나아가서 고조선 시대의 유물인 '청동 도끼 거푸집의 고조선인 얼굴' 과 남인도 특유의 액막이 인형인 '드리스티 보마이' 가 석장승의 원형 또는 전범(미메시스)임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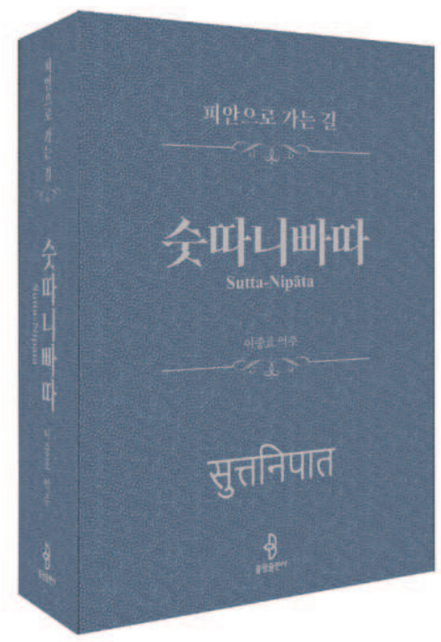
'명장 관우' 관련 진실과 허구는



신이 된 영웅 관우
마바오지 지음
양성희 옮김
더봄 펴냄
2만원

관우는 중국 삼국 시대 촉나라 명장으로, 당송 시대 이후 민간에서 신적 존재가 되었다. 보통의 역사 인물이었던 관우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성(神性)이 강해지고 오늘날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 발전한 것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이 책은 충의와 신의로 대표되는 관우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관우의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위의 두 가지 부분을 모두 살펴보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관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편 주요 민간 전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우리가 소설로 알고 있던 관우의 일화와 역사에 기록된 내용을 비교하며 오류를 바로 잡고 관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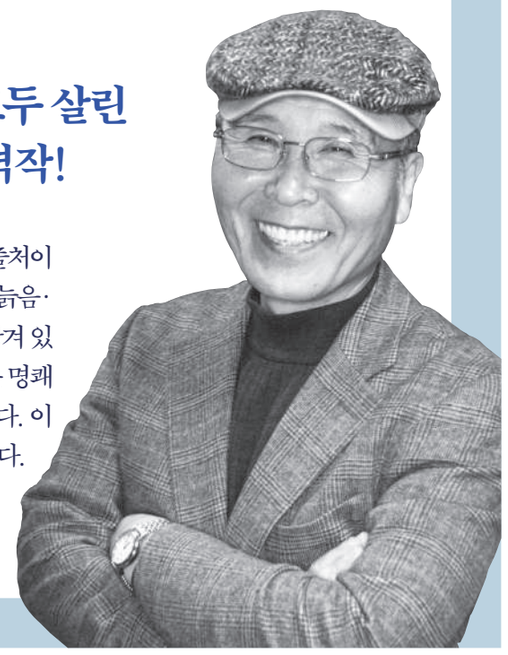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받는 경전
『숫따니빠따』에 대한 가장 완벽한 번역서



피안으로 가는 길
숫따니빠따
Sutta-Nipāta
이중표 역주
696쪽
30,000원

노랫말처럼 흐르는 원전의 형식과 내용의 적확성을 모두 살린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석학 이중표 명예교수의 역작!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등, 주옥 같은 경구의 출처이자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경전, 최초의 경전으로 꼽히는 『숫따니빠따』! 죽음·늙음·자유·욕망·깨달음 등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이 단순하면서도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담겨 있는 이 경전을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석학, 이중표 명예교수가 옮겼다. 원전의 의미는 명쾌하게 드러내면서도 마치 노랫말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원전의 형식을 고스란히 살렸다. 이 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정확하고 소박한 언어에 담긴 불교의 정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30 스리나가르여, 스리나가르여 3

▶한줄 요약
이 기자 일행은 뉴델리로 가는 도중에 군인들의 검문을 받는다.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일행은 군인들이 반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했지만 다행히 오오스마 기자가 다니는 신문사에 우호적인 정부군이었다.



뉴델리 가는 길, 검문을 받다

시종들이 달려들어 억지로 입을 벌리고 술을 들이부었다. 스님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자 여왕은 스님을 농락하려 하였다. 하지만 스님은 끝까지 저항했다. 그러자 여왕은 스님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를 죽여 버리고 말겠다.

-그럴 수는 없소이다. 나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소.

-사랑하는 사람?

되뇌던 여왕이 허공으로 얼굴을 쳐들고 까르르 웃었다.

-아니 사문이 여자를 사모하고 있다는 말이냐?

-아내요. 아내와 자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소. 내가 깨달음을 얻어 돌아가야 하오. 그들을 구해야 한다는 말이오. 그러니 놔 주시오. 그대도 사람이라면….

-그럴 수는 없다. 남자란 주인이 없는 것이다. 가지면 그 사람이 임자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남자요, 씨를 뿌리면 그만인 것이 남자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자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구려?

-그렇다. 네놈의 코를 꿰어야 하겠구나.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그 나라가 동녀국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오래전 이곳의 국왕은 남자였다. 정실 외에 후실이 40명이나 되었다. 자식이 55명이나 되었을 정도였다. 정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왜냐면 왕이 후실에게 미쳐 그녀들만 찾았기 때문이었다.

정실은 뱀을 풀어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 그의 후실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녀들의 아들들마저 죽였다. 여자아이들만 살려 병사로 키웠다. 동녀국이 된 것이다. 그때부터 남자애가 나면 코에다 코뚜레를 끼여 소처럼 길렀다. 밤이면 남자들이 소를 타고 여자들의 방으로 찾아들었다.

스님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여왕이 아랫사람들을 불렀다. 여자들이 창과 칼을 들고 몰려왔다.

-저놈의 코를 꿰어라!

그때였다.

-물러서라!

우렁찬 음성에 시선을 들어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여인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여인들이 그 앞에 하나같이 엎드렸다.

-산신이시여, 어쩐 일이십니까?

-네 이곳을 둘러본즉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 사문을 능욕하지 말라. 사문은 비정(非情)그 자체이다.

-비정이라니요?

여왕이 엎드린 채 물었다.

-사문이 비정하지 않고 어떻게 도(道)를 구하겠느냐.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세속을 어떻게 등지겠느냐. 사문이 비정을 잃는다면 무관 지옥에 떨어지리라.

산신이 스님을 향해 합장하였다.

-선지자여, 여왕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 나라를 지키다 신이 되어 산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대는 붓다의 경지를 얻을 몸이니 부디 이곳을 버리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들의 배웅을 받으며 스님은 그곳을 벗어났고 산신은 비를 세웠다. 그 후 동녀국에서 사문을 능욕하는 일은 없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동녀국은 멸망하였다. 그 때의 여왕은 살아남은 부하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이주하였는데 이상한 일은 비정의 비가 이곳으로 스스로 몸을 옮겨왔다. 여왕은 사문을 능욕하지 않고 나라를 잘 이끌었지만 세월 앞에는 어쩔 수 없었다. 동녀국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비석은 무너지지 않고 세월을 견디다 이제 몸을 눕히고 있었다.



오오스마 기자가 말을 끝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기야 싶었다. 사문이 비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견성을 볼 것인가. 그렇기에 오늘도 스님들은 결가부좌하고 화두를 든다.

이게 무엇인가? 부모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화두를 든다. 언젠가는 가족에게 돌아가 그들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은 채.

그러나저러나 오오스마 기자도 무쿠암의 지팡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그 생각을 딴 곳으로 돌리려고 말이 많았다?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자 스르르 눈이 감겼다.

꾸벅꾸벅 졸았던 모양이었다.

퍼뜩 눈을 뜨자 오오스마 기자가 속삭이듯 말했다.

-출출하지 않습니까?

탕.

오오스마 기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까운 곳에서 총소리가 일었다. 차가 키이익하고 급정거했다.

-뭐야?

자는 사람들이 놀라 일어났다. 뒤이어 한 무리의 군인들이 우르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총을 든 군인들의 얼굴이 하나 같이 검었다. 검정칠을 하고 정찰을 하다가 교전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인도 정부와 분리주의 간에 분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는데 이럴 수가!

군인 몇몇이 총을 겨누고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길이 뱀눈처럼 번뜩였다. 그들이 사람들을 살피는 사이 긴장감이 흘렀다. 누구 하나 숨을 크게 쉬는 사람이 없었다. 군인 하나가 오오스마 기자 앞에서 멈추었다. 오오스마의 생김새가 눈길을 끈 것이 분명했다.

군인이 오오스마 기자에게 총을 겨누고 한 손을 내밀었다.

-신분증.

오오스마 기자의 눈빛이 파르르 떨렸다. 그가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군인에게 주었다.

군인이 신분증을 받아 살펴보고는 동료에게 넘겼다. 아마도 상관 같았다. 상관이 오오스마 기자의 기자증을 살펴보다가 오오스마 기자 앞으로 돌아서며 물었다.

-기자야?

-그렇습니다.

오오스마 기자의 음성이 떨렸다.

-일어나.

오오스마 기자가 일어났다. 겁에 질린 사람들의 눈길이 그에게로 쏠렸다. 나는 그를 잡지도 못하고 올려다만 보았다.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오오스마 기자가 그 눈길로부터 돌아섰다. 상관이 총부리로 앞장서라는 듯이 오오스마 기자에게 휘둘렀다. 오오스마 기자가 앞장서서 차에서 내렸다 군인들이 그제야 쏜살같이 빠져나갔다.

-어떻게 된 거야?

송 서화가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린 내가 말했다.

고개를 숙이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던 송 서화가가 시선을 들었다.

-기다려 보지요. 분리 무장 단체가 아니고 정부군인 것 같으니까. 잘못되면 우리까지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송 서화가의 말이 맞았다.

잠시 후 오오스마 기자가 모습을 나타내었다.

-괜찮아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오스마 기자가 피식 웃었다.

-취재하다 보면 한 번씩 있는 일입니다. 무장 단체가 아니라 다행이었어요. 우리 신문사에 호의를 가지고 있으니 계속 잘 써달라고.

-어휴 십 년 감수했네.

송 서화가가 그제야 오오스마 기자를 툭 치며 말했다. 비로소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그래도 긴장이 물러가지 않는데 어느 한순간 내곁에 앉았던 오오스마 기자가 입을 열었다.

-스리나가르(Srinagar)는 엄밀히 인도 최서북부에 위치한 잠무 · 카슈미르(Jammu & Kashmir) 지역입니다. 인도 내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분쟁이 심해요. 1900년부터 카슈미르의 독립이나 파키스탄의 편입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반군이 활동하며 정부군을 괴롭히니까요. 무려 그 단체가 10여 개나 됩니다. 그들과 인도 정부와의 교전으로 지금까지 7만 명이 넘게 사망했다고 하니까요.

-듣긴 했지만, 그것도 모르고….

겁 없이 들어왔다는 내 말에 오오스마 기자가 빙그레 웃었다.

-참 이상해요.

-뭐가요?

-이렇게 위험한데 한국 사람들 도대체 겁이 없어요. 이곳을 여행자제 지역으로 선정했는데도 한국인 배낭 여행객들이 끊이지 않거든요. 북부 히마찰 프라데시(Himachal Pradesh)주 마날리(Manali)에서 스리나가르로 향하는 한국인 배낭여행 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위험지역이라고 말리는데도 그래서 간다는 식이에요. 주로 마날리에서 레(Leh)를 거쳐 스리나가르로 가는 루트를 선호하는데 정말 겁이 없어요. 우리도 몇 번 다루었어요. 현지 언론도 그렇고요. 거의 매일같이 스리나가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와 총격사건을 뉴스로 내보내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에요. 지난달에도 레이크(Dal Lake · 호수)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3명이 죽었어요. 지난해에는 이슬람 분리주의 무장 단체 히즈불 무자히딘의 젊은 지휘관 부르한 와니(Burhan Wani)가 정부군인 인도 치안 당국의 공격을 받아 죽었지요. 그러자 항의 시위가 두 달간 이어졌어요. 시위대 수십 명과 경찰들이 사망했는데도 여행객들은 넘쳐나요. 방금은 정부군이어서 다행이지 분리주의 무장 단체였다면 모두 끌려가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난처했을 겁니다.

무식하면 겁이 없다더니 이런 곳을 겁도 없이 활개 치고 있었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했다. 나는 새삼스럽게 오오스마 기자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동행했을 것이었다. 극단적으로 말해 목숨을 내놓고 이번 일에 임했다는 말인데 그렇게 위험하다고 했으면 나는 애초에 어땠을까 싶었다.

-나는 출가해서 스님이 될 팔자는 못 되는가 봅니다. 끌려갈 때 그 사람 생각이 나더군요. 아, 이렇게 헤어지는 것인가?

그 사람이라면 아내를 말하는 것인가?

-총각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셨군요?

내가 물었다.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내저었다.

-아닙니다. 약혼만 했어요. 같은 신문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어쩌다 정이 들었어요. 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런 사람과 헤어질 수 있겠어요. 날 길러준 사람들과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사문은 헤어져야만 하니….

나는 스쳐 지나가버린 비정의 비를 바라보았다. 이미 비정의 비는 보이지 않았지만, 설산을 헤매고 벌판을 헤맸을 사문의 모습이 눈앞에 어룽거렸다.〈계속〉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16 화두선은 어째서 가장 빠른 공부라 하는가?



▶한줄 요약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로 가는 수행법이라면 다 평등하니 좋고 나쁨이 없다.

'본래 부처' 지각하는 패스트 트랙 '화두선'

〈Fast Track, 목표를 위한 가장 빠른 길〉

'간화선은 최상승법이다' 라는 말이 있다. 화두 참선이 깨달음에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이다. 깨달음을 수행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빠른 깨달음으로 생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고자 한다. 어째서 화두선은 생사 해탈의 가장 빠른 길이라 하는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살펴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교토 용안사 선원에서 화두 참선하는 불자들. 이들은 필자와 함께 참선 수행하는 도반들이다.

중도에 근거한 수행법은 다 좋다

불교 경전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온다. 또 깨치는 방법도 너무나 다양하다.

하지만, 불교에서 깨달음은 중도(中道)이다. 부처님은 깨치고 첫 설법에서 당신이 중도를 깨쳤다는 중도대선언을 하였다. 중도가 깨달음이다. 중도에서 벗어난 것은 불교의 깨달음이 아니다. 중도에 부합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요, 중도에서 이탈하는 것은 외도(外道)이다.

불교의 근본은 중도이다. 부처님의 친설과 그 직계 제자들의 말씀을 모아 놓은 초기 경전과 부처님과 수많은 제자들의 말씀을 담은 대승 경전, 그리고 동아시아 조사 선지식의 말씀을 모아 놓은 조사어록이 모두 중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부처님의 첫 설법인 초전법륜을 기록한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은 당신이 깨친 중도를 팔정도라 하였다. 중도 = 팔정도인 것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2600년 가까이 되었고 이후 사방 팔방으로 그 가르침이 전파되어 변화 발전하여도 불교의 근본은 중도 팔정도인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남방 승가 전통의 위빠사나 수행법이나 대승의 티벳불교 수행법이나 한국 조계종의 화두선이나 염불이나 일본의 묵조선이나 중도 팔정도를 근본으로 하는 수행법이라면 다 좋다. 남방이든 북방이든, 대승이든 소승이든, 화두선이든 위빠사나든, 염불이든 주력이든, 보살행이든 보시이든 상관이 없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 선지식들이 깨치고 설한 중도 팔정도를 근본으로 하는 수행이라면 다 훌륭하고 위대한 깨달음의 길이다.

중도를 깨치려는 수행 방법은 다 평등하다

부처님이 깨친 중도에 근거한 모든 수행법이 다 좋다면, 어째서 화두선은 가장 빠른 공부라 하는가?

남방 상좌부 승가의 전통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공부하는 불자들은 위빠사나가 부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수행법이라 믿고 그 외의 수행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치고 첫 설법에서 당신이 중도를 깨쳤노라 하였고 어떤 수행을 해서 깨쳤다고 하지는 않았다. 경전의 기록으로 보아도 부처님 이후 처음으로 깨친 수행자 꼰단냐(한문역 교진여)도 부처님의 중도, 팔정도, 사성제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치는 언하대오(言下大悟)를 하였다. 지금 남방과 북방을 대표하는 위빠사나나 화두 참선법으로 깨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초기 경전이나 대승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치는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므로 '위빠사나만이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법이다' 라고 하거나 '간화선이 최고의 수행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았고, 중도를 깨치는 길은 수없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서울로 가는 모든 길이 통하듯이 중도의 깨달음으로 가는 모든 수행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니 다 평등하고 우열이 있을 수 없다.

> **팔정도 근본으로 하는 수행은 다 훌륭하고 위대해**
> **해탈 하려는자 불교 근본 중도 공부로 정견 세워야**

만약 불교 수행법에서 어느 수행이 좋고 어느 수행이 나쁘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보고 말하는 이는 정견(正見)이 서지 못하여 아직도 분별망상 속에서 말하는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로 가는 수행법이라면 다 평등하니 좋고 나쁨이 없기 때문이다.

불자라면 잘 아는 바와 같이 부처님 법은 중도 불이(不二)다. 나와 너, 선과 악, 부처와 중생, 간화선과 위빠사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이 되어 양변에 집착하면 분별망상이 일어나 중도 정견이 서지 못한다. 중도 정견이 확고하려면 일제만물, 일체 존재를 중도 정견으로 보아 불이(不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남방과 북방, 대승과 소승, 간화선과 위빠사나, 화두선과 염불 등을 볼 때 상대 분별에 빠져 좋고 나쁨으로 본다면 삿된 견해인 것이고 다 좋고 평등한 수행법이라 보는 것이 정견이라 하겠다.

불교 수행을 하려면 정견을 세워야 한다

부처님의 지혜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을 성취하려는 이는 반드시 가장 먼저 불교의 근본 중도를 공부하여 정견을 세워야 한다. 불교의 정견이란 중도로 보는 안목이다.

부처님이 깨친 중도의 정견이란 바름과 삿됨을 바로 보는 안목이다. 바름과 삿됨을 구분하는 인목이 서면 지혜가 나온다. 불교의 정견 지혜를 밝히지 않고 깨달음을 향해 수행하는 이는 금강산을 구경하려는 이가 금강산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찾아가는 격이다. 이렇게 정견 없이 수행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정견 없이 수행하는 사람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는 격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행위다. 당장 멈추고 불교의 근본 중도, 팔정도 공부를 해서 정견을 세워야 한다.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를 공부해서 정견이 확고한 이라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며, 세상 만물의 존재원리를 바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교의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운 이라야 바른 깨달음의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정견은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의 중도 정견이 선 사람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다. 화두선, 염불, 주력, 절, 지계, 봉사, 보시, 위빠사나, 자비명상 다 훌륭하고 좋다. 불교 수행법에서 우열은 없다. 다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할 깨달음의 길이다.

어째서 화두선은 가장 빠른 공부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두선은 어째서 가장 빠른 깨달음의 길이라 하고, 직지(直指), 돈오(頓悟), 최상승(最上乘)이라 하는가?

불교의 근본 중도를 깨치려는 수행 방법은 다 좋고 평등하지만, 그 깨달음의 수행이 빠르고 느린 차이는 있다.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과 천천히 가는 방법이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비행기고, 그 외에도 기차나 버스, 자전거, 걷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이 중생이 부처 되는 수행 방법에도 빠르고 느린 차이는 있다. 화두선은 그 중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에 비유할 수 있다. 위빠사나나 화엄종 같은 대승 교학에서는 중생이 부처가 되는 과정을 4차제나 9차제 또는 52단계를 말한다. 중생이 부처 되는 깨달음 수행에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과 단계를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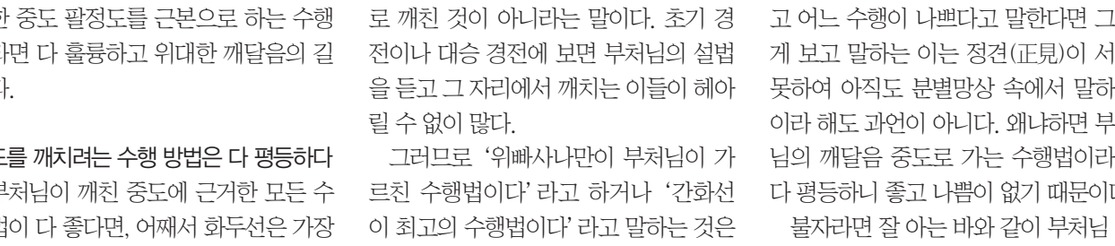
그러나, 화두선은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것을 방편일뿐 중생이 본래 부처라 한다. 우리가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이니 중생이란 착각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 착각을 깨는데 화두가 가장 빠르고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에서는 깨달음을 직지, 돈오, 돈수, 일초직입여래지라 한다.

화두선이 빠르다고 불교가 아닌 것이 아니다. 화두선도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깨치는 것이다. 중생이니 부처니, 생이니 사니, 선이니 악이니 하는 양변에 집착하는 분별망상을 화두로 차단하여 바로 중도를 체험하며 실천하고 깨치는 수행법이다.

화두선은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수행을 말하지만, 그 수행도 닦음 없이 닦는다 하여 무수지수(無修之修)라 한다. 물론 화두선이 빠르다고 염불이나 위빠사나 등 다른 수행법을 낮춰보면 아직 정견을 세우지 못한 것이니 화두 공부할 자격이 없는 분이다. 화두보다 먼저 중도 정견 세우는 공부가 먼저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

법주 대륜 스님의
'불교 전통제례의식 교본' 출시
49재 및 천도재 의식 교육자료



고객상담실 010-9049-0016 교재문의 010-6488-3761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⑯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편액

▶ 한줄 요약
현판은 목조각과 서예, 단청미술이 결집된 산물이다.



왕이 쓴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편액

편액은 건축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문화재로 지정된 편액 두 점 불과 해강이 쓴 글씨 대자체 편액 전형 '무량수전', 14세기 고려시대 편액

사찰편액은 하나의 불국정토 상징

'문자향 서권기(文字香 書卷氣)'라는 문장이 있다. 추사 김정희가 쓴 글이다. 글과 학문을 깊이 익힌 사람에게서 저절로 묻어나는 내면의 향기를 이른다. 18세기 프랑스 박물학자 뷔퐁이 말했다. "글이 곧 사람이다" 이때의 글의 의미는 문장이다. 사람이 쓰는 글씨 속에도 저마다의 개성과 삶의 태도가 밴다. 글씨에 미묘한 기운이 있고, 표정이 있다. 글도 생명력이 있어 살아 꿈틀거린다. 당대 최고 수준의 글은 명필의 글을 모은 법첩(法帖)이나 금석문의 비첩(碑帖)에 전해진다. 법첩과 비첩은 서예 교과서로 활용된다. 건축물의 현판도 명필의 보고다. 한국의 궁궐이나 사찰, 향교, 서원, 누정 등은 현판 글씨의 진열장과 다름없다. 하나의 현판은 목조각과 서예, 단청미술이 결집된 산물이다.

'현판(懸板)'은 '글을 쓴 널빤지를 걸었다'는 의미다. 현판 대신 '편액(扁額)'이라 부르기도 한다. '액'은 '이마'로서, 편액은 건축물의 이마에 내건 글씨 쓴 판재라는 뜻이다. 둘 다 같은 의미이지만 현판 개념의 폭이 더 넓다. 중건기라든지 시문 등을 적은 널판, 기둥에 내건 주련 등도 현판의 개념에 포함된다. 편액은 건물의 이마 부분에 건 당호 현판으로 한정된다. 편액은 출입문 위 처마 아래 정중앙에 걸고, 건축물의 당호를 쓴 현판이다. 건축에 편액을 거는 것은 사람의 작명처럼 생명을 불어넣는다.

사찰건축에 편액을 거는 순간 하나의 불국토로서 건축은 생명력을 가진다. 불교건축에서 하나의 편액은 하나의 불국정토를 상징하고, 하나의 승가공동체, 수행공간임을 증명한다. 청정하고 성스러운 국토로서의 위상을 부여하는 힘을 가진다. 그만큼 글의 무게도 엄중하고 무겁다. 사찰편액에 당대 최고의 명필과 인연이 닿을 수밖에 없다.

사찰의 관문인 일주문에 걸린 편액은 한국의 전통목조건축이 간직한 현판 미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양산 통도사의 '영취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의 '가야산 해인사', 순천 송광사의 '대승선종 조계산 송광사', 구례 화엄사의 '지리산 화엄사', 구례 천은사의 '지리산 천은사' 등의 일주문 편액이 대표적이다. 이 일주문 글씨들은 큰 글씨로 화면을 가득 채우는 대자체(大字體) 편액 글씨의 진면목을 드러낸다. 글자에 힘이 흐르고 법도를 갖췄다. 흘림 없이 반듯하게 쓴 해서체가 대부분이다. 부드러우면서도 굵은 획의 뼈대엔 강직한 힘이 실려 있다. 위엄과 성스러움을 갖춘 대웅전 같은 불전 건물의 편액 글씨체는 대부분 해서체다. 획에 힘과 엄격한 규범이 있어 편액의 대자체에 적합하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편액(공민왕)



위에서부터 차례로 양산 통도사 일주문 편액(흥선대원군), 합천 해인사 일주문 편액(해강 김규진), 순천 송광사의 해강-죽농의 합작 편액, 해남 대흥사 '무량수각' 편액(추사 김정희)

의창군, 대원군, 추사, 원교, 해강의 글씨

그렇다면 편액의 글씨들은 누가 썼을까? 사찰 현판 글씨를 쓴 사람은 크게 첫째, 왕, 왕자, 대원군의 왕족. 둘째, 당대 서예 명필가. 셋째, 고승 명필가 등이다. 이들 중 신라의 김생, 고려 공민왕, 조선 선조의 여덟 번째 아들 의창군 이광, 흥선 대원군, 추사 김정희, 원교 이광사, 해강 김규진의 글은 단연 시선을 끈다. 이들이 쓴 사찰편액은 한국산사 편액의 정수로 평가된다. 김생의 편액 글은 직접 남긴 유묵이 아니라 글을 한 자씩 모아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별한 사례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쓴 사찰편액도 있다. 여수 흥국사에 현존하는 '공북루(拱北樓)' 현판이 충무공의 글씨다. 현판에 '계사동 수군절도사서(癸巳冬 水軍節度使書)'라는 관지가 남아 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다음해인 1593년에 이순신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명필가들이 남긴 사찰편액은 다음과 같다.

△신라 김생의 글(집자):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강진 백련사 '만덕산 백련사' 등. '만덕산 백련사' 현판 글은 골기가 곧고 힘차다. 세로 편액이라 독특하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흥 보림사 일주문에도 같은 세로 두 줄 형식의 편액 '가지산 보림사'가 걸려 있어 비교가 된다.

△의창군 이광의 글: 구례 화엄사 일주문의 '지리산 화엄사'와 '대웅전' 등. '지리산 화엄사' 편액의 좌측에 '황명숭정구년 세사병자중추 의창군광서(皇明崇禎九年 歲舍丙子仲秋 義昌君珖書)'라고 쓴 관지가 있다. 의창군 이광이 1636년에 썼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정함고 위엄이 돋보이는 화엄사 '대웅전' 해서체 글씨는 하동 쌍계사, 예산 수덕사, 장성 내장사, 서울 조계사 등 전국 각지의 대웅전 현판에 유행처럼 모각됐다.

△흥선 대원군의 글: 양산 통도사의 '영취산 통도사', '금강계단' 등. 서울 '화계사'와 '흥천사', 남양주 '흥국사' 편액도 대원군의 글씨다. '금강계단'과 '영취산 통도사'는 검은 옻칠 바탕을 만들고 글을 양각으로 새긴 후, 글 위에 금박을 입혀 완성했다. 위엄 있는 왕실 편액 형식을 보여준다.



왼쪽부터 구례 천은사 일주문 편액(원교 이광사), 순천 송광사 일주문 편액(작가미상), 강진 백련사 편액(신라 김생의 글 집자)



왼쪽 위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구례 화엄사 일주문 편액(의창군 이광), 여수 흥국사 공북루(충무공 이순신), 영천 은해사 불광(추사 김정희)

현판의 글, 세계기록유산의 가치

△추사 김정희의 글: 영천 은해사의 '불광(佛光)', '은해사', '대웅전', '보화루', '산해숭심(山海崇深)', 해남 대흥사의 '무량수각', '일로향실', 하동 쌍계사의 '세계일화 조종육엽', 구례 화엄사의 '화장(華藏)', 서울 봉은사의 '판전(板殿)' 등. 특히 '무량수각'과 '일로향실', '세계일화 조종육엽'의 편액은 전국 각지의 사찰에 모각돼 걸려 있다. 화엄사의 '화장(華藏)' 편액은 한국산사 편액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편액의 화면에 꽃비가 내리고 있다. 봉은사의 '판전' 편액 글씨는 추사가 임종한 해인 1856년에 썼다. 숱한 현판 중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단 두 점에 지나지 않는다. 봉은사 '판전'과 영주 '소수서원' 편액이다. 각각 서울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이다. 부석사 '무량수전', 은해사 '불광', 해강 김규진의 해인사 일주문 편액 등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충분함에도 도외시되고 있어 안타깝다. 전국의 궁궐, 사찰, 향교, 서원, 누정 등에 광범위하게 현존하는 현판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원교 이광사의 글: 구례 천은사 일주문의 '지리산 천은사', 고창 선운사 요사채에 걸려 있는 고요한 움막집이라는 뜻의 '정와(靜窩)', 해남 대흥사의 '대웅보전', '침계루' 등. 원교는 1755년 나주 벽서사건으로 조선의 최북단 함경도 부령에서의 7년 유형에 이어, 최남단인 전라도 완도 신지도에서 15년, 총 22년을 유배지에서 살다 삶을 마감했다. '동국진체'라고 불리는 그의 글 속에는 유배지인 완도 앞바다의 파도가 일렁인다. 글씨의 획이 물처럼 흐른다. 어떤 틀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에의 의지가 읽혀진다. 다산 정약용은 원교의 글씨를 두고 "자형(字形)이 가증스럽다"고 혹평하였지만, 원교의 글씨에는 남도 특유의 애환과 삶의 비장미가 묻어난다. 원교의 글 속에는 원교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다. 글 속에 사람이 있다. 그래서 원교의 글은 울림을 준다.

△해강 김규진의 글: 합천 해인사의 '가야산 해인사', 상주 남장사의 '노악산 남장사', 삼척 영은사의 '태백산 영은사', 서산 개심사의 '상왕산 개심사', 하동 쌍계사의 '삼신산 쌍계사' 등 한국산사 일주문 편액의 원숙미를 보여준다. 무거울 대로 무겁고, 농익을 대로 농익었고, 깊을 대로 깊다. 4m 길이를 넘나드는 해강의 일주문 편액 글씨는 장대하고, 묵직하며, 당당하다. 편액 대자체(大字體)의 품격과 격조를 갖추고 있다. 해강의 글씨를 단 일주문은 글씨만큼 당당하고 늠름하다. 글이 건축을 살려낸다. 글의 힘과 생명력을 실증한다. 해강 글씨의 편액 중에서 독특한 형식도 더러 현존한다. 죽농 안순환과 합작해서 만든 편액이 그것이다. 해강이 글을 쓰고, 죽농이 난과 대나무를 쳐서 글과 그림, 목각이 있는 독특한 현판을 선보였다. 그 같은 편액은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마곡사, 은해사, 백양사, 전등사, 위봉사, 보석사 등 10여 곳 사찰에 현전한다.

옻칠한 바탕을 양각한 후 글씨에 금박

고려 공민왕의 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봉화 청량사 '유리보전' 등. 부석사 '무량수전'의 현판 뒤에 다음과 같은 묵서명이 남아 있다고 한다. "금당의 글씨는 공민왕이 쓴 것이다. 〈중략〉 신미년(1691) 여름엔 이 절 화승 영필이 마음을 내서 액자 테두리를 다시 만들었다(金堂題字, 恭愍王之親筆也, 〈중략〉 到于辛未孟夏間, 寺畵僧瑛玭慨然傾心四雪角改造也)" 묵서명은 글씨는 고려 공민왕의 것이고, 편액의 테두리는 17세기 후반에 보수한 것임을 알게 한다. 홍건적의 침략을 피해 영주, 안동으로 몽진하다 개경으로 돌아간 1361년~1363년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무량수전'의 편액은 정사각형 형태다. 두 장의 널빤지를 연결해서 정사각형 바탕 판재를 만들었다. 바탕은 윤기가 흐를 정도로 옻칠을 입혀 검게 마감했다. 바탕을 얕은 부조로 양각한 후, 글에 금박을 입혔다. 금박은 세월에 벗겨져 흰색 글씨로 보이지만, 글씨에 금박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정사각형 바탕을 4등분하여 무량, 수전 두 자씩 세로로 써 내렸다. 편액 테두리는 비스듬한 각을 가진 네 개의 빗각 판재로 결구했다. 빗각 테두리의 표면엔 삼청으로 가칠단청 하였고, 테두리 단면은 봉긋봉긋한 구름 형상처럼 우아하고 대칭적이게 잘라냈다. 편액 구성이 단순하고 간결함에도 불구하고 아담하고 세련된 구성미가 살아있다. 글은 골기가 있는 굵은 해서체의 획으로 편액에 가득 차게 썼다. 부석사 '무량수전' 편액은 650여 년 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것도 그림과 글에 뛰어났던 14세기 고려 공민왕의 글씨이다. 그것은 한국산사가 간직한 서예의 미(美)이자, 또 하나의 고려시대 기록문화 목판이며, 소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목공예 걸작이다. 〈사진작가〉

일일시호일

가까스로 심정지 벗어났지만
디스크까지 겹쳐 고통

한국서 홀로 가족 생계 책임지던 스리랑카 이주민 삼밧씨
병원비 1000만원에 허리 · 무릎 수술… "가족 위해 일어나야"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불교인문학살롱 ⑯ 소설가 샐린저의 문학세계



▶**박양근 명예교수**는 1993년 〈월간에세이〉 에세이스트로 천료, 2003년 〈문학예술〉에서 '한흑구론'으로 문학평론가가 됐다. 국제한국본부 부이사장, 부산수필문인협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부경대 영문과 명예교수이며 부산국제문학제집행위원장, 영남수필학회장, 부경수필문인협회 지도교수를 맡고 있다. 각종 저술을 하면서 동서인문학강의를 하고 있다.

美물질주의 경종 울린 '영성의 문학가'



미국 소설가 J. D. 샐린저(1919~2010)는 선불교 수행과 힌두교 사상에 심취했던 작가다. 그의 〈호밀밭 파수꾼〉은 미국 기성사회의 부조리와 모순, 물질만능주의의 폐해를 꼬집은 작품이다.

1940년대 미국 소설가로 J. D. 샐린저(1919~2010)라는 특이한 작가가 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지구촌을 휩쓴 상실과 부조리, 히피와 탈(脫)이데올로기 시대에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단 한 권의 장편소설로 영문학의 총아가 됐다. 헤밍웨이와 윌리엄 포크너가 일으킨 현대문학의 광풍이 소진된 공백기에 그의 출현은 불가피한 시대적 단면이었다.

샐린저는 작품에 못지않게 그의 인생론과 개인생활이 더 많은 관심을 끈다. 개인생활의 노출을 극도로 싫어했으며, 미국문학이 지니는 하급층과 대중성을 바탕으로 종교적 분위기를 지닌 작품을 발표해 기성 미국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모더니즘의 급변기에 접어들었다. 유태인과 흑인 등 소수인종문화의 등장, 페미니즘과 생태주의 인식, 반전운동과 탈식민주의라는 조류는 질서와 전통을 존중하던 기존문학에 반성적 성찰을 요구했다. 미국은 더 이상 유럽형 문학을 고수할 수 없었다. 새롭게 인식할 세상이 필요하고 신비적으로만 여긴 동양사상과 선(禪)적인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동양적인 인간 존재의 문제를 서구 문명사회에 이식하여 소설화한 인물이 샐린저다.

샐린저는 전기적 사실에서 남다른 이력을 보여준다. 사업가인 유태인 아버지와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명문학교에 입학했지만 한 학기 만에 퇴학당했다. 이후 펜실베이니아 밸리포지 사관형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역시 엄격한 규율에 적응하지 못했다. 또한 학창 시절 연기에 소질을 보여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사업가가 되기를 바랐던 부모에 의해 좌절당했다.

다행히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해 문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작가로서 활동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갖는다. 그동안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 도살장에 취업하지만 생명을 죽이는 모습에 혐오감을 느끼고 2차 대전 동안 종군기자로 참가해 사람의 살이 타는 냄새를 맡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 트라우마는 후일 그가 채식주의자가 되고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세계를 구축한 동기가 된다. 나아가 시골 지방에 칩거한 그만의 고립 생활은 2010년 죽을 때까지 계속됐다.

샐린저는 처음 단편작가로 등장할 때 "찰나적인 영감으로 썼다"고 회상한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실비아 웰트와 결혼하였으나 이내 별거했고, 이후의 세 차례 결혼도 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대신에 동양종교와 사상이 그의 삶과 문학의 주춧돌로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1940년 후반부에 선불교의 열렬한 신자가 되었고 1952년 이후에는 힌두교에 심취했으며 그 후에도 종파적 관심은 수시로 달라 1955년 이후에는 한동안 미국에 있는 힌두사원에 거주하며 참선 수행을 했다. 그의 선 수련은 이에 그치지 않아 자신의 신앙적 이론을 〈테디〉라는 단편을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샐린저는 1967년 뉴햄프셔 주 시골 클라리 와이온으로 이주한 후 가족이 사는 집과 마주하는 길 건너편 코로니스 301 랩 로드에 집을 따로 짓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거주했다.

〈호밀밭의 파수꾼〉(1951)을 위시한 그의 장·단편 소설 대부분은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 중반까지 약 10년간에 걸쳐 있다. 이 시기는 샐린저가 서구형의 세속적인 욕망과 동양의 경건하고 종교적인 삶 사이에서 방황하던 때와 일치한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홀든 코필드는 당시 샐린저의 분신이라고 할 만하다. 그 후에는 소설(시와 드라마를 쓰기도 하였다)보다는 종교적 삶에 집착했다. 그는 태생적으로 완벽주의적이고 선악의 이분(二分)이 분명했다. 소설의 익명성에 자신을 담았던 후반기에는 "선사상에 심취하여 명상과 글쓰기를 동등한 것으로 여겼고, 자아를 떨쳐 내려고 노력했다"는 심중의 고백처럼 결국 초연한 삶을 택했다.

샐린저의 심적 세계와 종교적 자애심을 대변하는 〈호밀밭의 파수꾼〉 주인공 홀든 코필드는 1펜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학생이다. 작가처럼 성적 부진으로 세 차례 퇴학당한 그는 3일 반 동안 뉴욕 도시를 돌아다니면 갖가지 경험을 한다. 뉴욕은 가식과 거짓과 타락이 만연한 기성사회다. 타락한 자본주의 문명이 판을 치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까. 그는 피카레스크적인 주인공으로 어른의 행동을 흉내 내면서 생의 모험을 이어간다. 작별인사를 하러 스펜서 선생님의 집을 찾아가고 기숙사로 돌아와 룸메이트 워드와 여자를 사이에 두고 싸우고 충동적으로 짐을 싸 그날 밤 뉴욕으로 향한다.

〈호밀밭 파수꾼〉으로 유명한 샐린저
소설 주인공 홀든 시선으로 사회고발
1940년대 禪에 심취…힌두교도 관심
〈테디〉 등 선불교 관련 작품들 다수

퇴학 통지가 집으로 우송되기 전에 술 담배를 하고, 옛 여자 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옛 친구와 만나고 호텔에서 여자와 자려다 15달러를 갈취 당한다. 수녀를 만나 10달러를 기부하고 여동생이 보고 싶어 밤중에 아파트로 숨어든다. 오빠가 학교에서 다시 퇴학당한 것을 알아챈 동생 피비가 뭘 하고 싶으냐고 물을 때 홀든은 소설 제목이 된 희망을 이야기한다.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주위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옆에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지.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바보 같은 얘기라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건 그거야. 바보 같겠지만 말이야."

다시 집을 나와 앤톨리니 선생 댁에 가지만 성추행을 당하여 충격을 받은 홀든은 마지막으로 피비를 보고 서부로 떠나려 한다. 다음 날 아침에 피비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학교 담벼락에 그려진 외설적인 낙서를 지우고 다닌다. 이후 그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이 작품은 허위와 가식으로 가득 찬 세상을 청소년의 시선을 빌어 고발한다. 3일 반에 걸쳐 목격한 뉴욕은 쾌락과 허식의 세계이다. 홀든의 행적은 방황이면서 무엇인가의 목적지로 향하는 탐색이며 순례다. 사회는 위선과 허구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그가 다녔던 펜시고등학교는 말을 타고 폴로를 즐기는 학생들의 사진으로 광고하지만, 학교에는 말이 없다. 그런 기성세대가 과연 세상의 거짓을 책임지고 젊은이들의 방황에 충고할 의향이 있는가를 작품은 묻는다.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홀든은 기성세대의 추악한 면을 알았으므로 자신이 아이들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구체적으로 학교 담벼락에 쓰여 있는 외설적인 욕설까지 지우기도 한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기성세대가 어지럽힌 세상을 새롭게 정화시키려는 실천자이고 아이들이 더 이상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기사이다.

어른들은 홀든을 문제 학생으로 간주한다. 이것이 기성사회가 그렇다고 여기는 그의 외양이다. 하지만 실재 그는 기성사회가 인식하기 어려운 고상한 기질을 지닌 '기사형 청년'이다. 사회는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이 다르면 자기 식대로 믿어버린다. 그렇다면 그를 어떤 인간으로 봐야 할까?

샐린저는 작품에 이런 명언을 적었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하려는 것은 세상은 부도덕하고 가식과 위선의 정신병을 앓고 사람은 어른들이고 그런 사회에서 아이들은 정신적 혼란을 겪는다는 내용이다. 샐린저도 세상은 실재가 아닌 허상이 가득한 곳이라고 여긴다. 미국 작가 제임스 룬드 카이스트가 샐린저를 '심원한 종교적인 작가(a profoundly religious writer)'로 지칭한 말을 빌린다면 뉴욕, 미국, 나아가 현대사회에는 본질적인 것들이 거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허상은 불교의 공(空) 사상에 닿아있다. 공(空)은 불교사상의 근본적인 개념 중의 하나로서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으로 요약된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건만 문명에 취한 그들은 자신의 외양과 실재를 인위적으로 구분하려 한다는 것이다.

홀든은 파계의 3일을 보내지만 매번 자신의 행동과 주변상황을 비평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일탈을 자각하고 있다. 여동생 피비의 말대로 지금까지 '좋아하는 것'이 없었지만 이제 '좋아하는 것'을 자각하고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기로 작정한다. 하지만 구원의 목자가 되려하는 순간, 세상은 그를 정신병원에 보내버린다. 어쩌면 홀든은 그것마저 이미 알아차리고 스스로 선택한 길일지도 모른다. 작가 샐린저도 시대를 위한 펜으로 시대의 타락을 경고했지만 글의 한계를 인식하고 절필에 가까운 은둔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샐린저에게는 동양 선(禪)을 소재로 한 단편도 적지 않다. 단편들은 미국의 허위(Phony)를 동양의 선사상으로 교화하려한 문제작으로 앞서 소개한 〈테디〉 외에 〈아홉 이야기들〉은 선불교의 시각에서 본 죽음과 윤회를, 〈프래니와 주이〉는 선수행을 다뤘다. 2차 대전 후 다원주의 국제사회가 형성된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샐린저의 작품정신은 미국의 물질만능과 가식의 세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임을 이해할 수 있다.

샐린저의 소설은 변천의 시대와 상관없는 미국 전통도 유지한다. 미국소설의 특징은 매번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아메리칸 아담을 창조한다는 점이다. 개척기의 립 반 윙클, 허먼 멜빌의 해양소설 영웅인 이쉬밀, 2차 대전 후에는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 핏즈 제라드의 〈위대한 개츠비〉의 청년 개츠비, 마크 트웨인의 헉 핀 등은 미국 역사를 반영하는 아메리칸 아담들이다. 호밀밭의 파수꾼 홀든 코필드도 미국적 아담으로서 미국과 미국인의 허식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갖는다.

샐린저는 유언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용감한 군인과 실패한 남편, 창조적인 열정으로 가득 찬 작가에서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은둔을 택한 남자까지, 모두 한 인물 안에 들어 있다." 그 인물이 '홀든 코필드'다. 그리고 홀든은 "이 세상에 있기는 했지만,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았던" 불온한 시대의 이탈자이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불교 수행, 지계에서 시작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㉛ 능엄경의 도량안립(道場安立)

〈원문〉 아난이 가사를 정돈하고 절을 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대비하는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부처가 되는 법문을 깨달아서 의혹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제도 받지 못했어도 먼저 남을 제도하려는 것이 보살의 발심이요, 자기의 깨달음이 이미 원만해지고 다른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은 여래가 세상에 응하는 일' 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비록 제도되지 못했으나 말겁의 일체중생을 제도하려 합니다. 세존이시여, 말겁의 중생들이 부처님 계실 때와 점점 멀어져 그릇된 스승들의 설법이 갠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많아질 적에 그 마음을 거두어 삼마지에 들게 하려면 어떻게 도량을 안립하여야 마군의 일이 멀어지고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대중 가운데서 아난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구나. 네가 물은 것처럼 도량을 안립하여 말겁에 빠진 중생을 구호하려거든 나의 비나야 가운데 설한 세 가지 결정적인 뜻을 수행해야 하느니라. 이른바 마음을 거두는 것을 계(戒)라 하고 계(戒)를 인하여 정(定)이 생기며 정(定)을 인하여 혜(慧)가 일어나나니 이것을 삼무루학(三無漏學)이라 하느니라. 만약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이 그 마음이 음란치 아니하면 곧 생사의 상속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삼매를 닦는 것은 진로(塵勞)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니 네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삼마지를 닦게 하려거든 마음의 음욕을 끊게 하여야 하나니 이것이 선불세존(先佛世尊)의 첫 번째 결정적인 청정한 가르침이니라.

아난아, 네가 세상 사람을 가르쳐 삼마지를 닦게 하려거든 살생을 끊게 해야 하나니 이것이 선불세존의 두 번째 결정적인 청정한 가르침이니라.

아난아, 네가 세상 사람을 가르쳐 삼마지를 닦게 하려거든 그 마음에 투도를 아니하고 투도를 끊게 해야 하나니 이것이 선불세존의 세 번째 결정적인 청정한 가르침이니라.

〈강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쭌다. 성불하는 법문을 잘 들어 알았으나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보살의 발심은 자신이 제도 받지 못했더라도 남을 먼저 제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량을 어떻게 안립(安立)해야 하는지 여쭙고 있다. '도량안립' 이란 도량을 세운다는 뜻이다. 원래 도량이란 깨달음을 이룬 장소를 뜻하는 공간적인 개념이나 그러한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동기가 되는 모든 작용을 도량(道場)이라고 한다. 〈유마경〉에서는 직심(直心)이 도량이라 하고 이어 보시, 지계 등 육바라밀을 도량이라 하였다. 〈능엄경〉의 도량안립은 세 가지 결정적인 뜻으로 한다고 밝힌다. 비나야는 율장(律藏)을 말하는데 마음을 섭수(攝受)하는 것을 계(戒)를 삼고 계를 인하여 정(定)이 생기고 정을 인하여 혜(慧)를 발한다 하였다. 말하자면 마음이 잘 단속된 것이 계가 되고 이로 인해 삼무루학(三無漏學)이 성취된다 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삼학(三學)에서 계를 대승의 심계(心戒)로 설명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음계(婬戒)를 먼저 내세우면서 생사의 상속을 따르지 않으려면 음심(淫心)을 먼저 끊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선불세존의 첫 번째 결정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선불(先佛)이란 과거의 부처님 곧 선대(先代)의 부처님이란 말이다. 살(殺), 도(盜), 음(婬)을 음, 살, 도로 순서를 바꾸어 세 가지 결정적인 청정한 가르침(決定淸淨明誨)이라 하였다. 〈능엄경〉은 계율의 엄격한 실천을 요한다. 육식(肉食)을 금하고 오신채(五辛菜)뿐만 아니라 우유를 마시는 것조차 금하고 있다. 육식과 우유까지를 금하는 것은 불살생(不殺生)을 계율을 간접적인 영역까지 확대하여 몸으로 행동화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은 계율을 지키는 행동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무아로써 지계바라밀 행해지면…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㉛ 보시바라밀과 지계바라밀

6신통을 갖춘 진여보살은 생멸문 전체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디든지 마음대로 오고 갈 수도 있다. 9지 보살은 천이통을 활용해서 모든 중생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숙명통과 타심통을 활용해서 중생들의 업보와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역무육입진을 통해 모든 반연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이 6신통의 권능 때문이다. 10지 법운지에서 행해지는 보시바라밀은 생멸문의 본원인 원초신을 제도하는 것이다. 진여보살이 생성해내는 밝은성품으로 생멸문 전체를 덮으면 법운지에 들었다고 말한다. 그 상태에서 역무명색진(亦無名色盡), 역무식진(亦無識盡), 역무행진(亦無行盡), 역무무명진(亦無無明盡)을 행하면서 생멸문 전체를 제도한다. 역무명색진(亦無名色盡)을 통해서는 생멸 정보 간에 이루어지는 인연적 성향을 제도한다. 역무식진(亦無識盡)을 통해서는 원초신의 식의 바탕을 제도한다. 그러면서 불공여래장을 완성시킨다. 역무행진(亦無行盡)을 통해서는 밝은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한다. 이로써 자연지(自然智)를 성취한다. 역무무명진(亦無無明盡)을 통해서는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한다. 이로써 공여래장을 완성시킨다. 이것이 보살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보시바라밀이다.

다음은 지계바라밀이다. 지계란 받아 지니고 지키는 것이다. 생멸수행의 지계바라밀이 있고 진여수행의 지계바라밀이 있다. 생멸수행의 지계바라밀은 세 가지 관점으로 행해진다. 첫 번째 관점은 무아적 관점이다. 의식 · 감정 · 의지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밝은성품적 관점이다. 청정함, 착함, 떳떳함을 지키는 것이다. 세 번째 관점은 율법적 관점이다. 5계, 10계, 108계, 250계를 지키는 것이다. 무아적 관점으로 지계바라밀을 실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정(定)의 주체를 세우고 그것에 입각해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쓰는 것이다. 무념, 무심, 각성, 본성이 정의 주체이다. 두 번째 방법은 본성 · 각성 · 밝은성품에 입각해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쓰는 것이다. 중간반야해탈의 단계에서 행해지는 '무아' 의 실천이다. 사다함의 경지이다. 세 번째 방법은 본성의 간극에 몰입해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종반야해탈의 단계에서 행해지는 무아의 실천이다. 아라한의 경지이다. 머릿골 속의 텅 빈 자리에 입각해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쓴다, 무념에 입각해서 '무아' 를 실천하는 것이다. 가슴바탕에 세워진 편안한 자리에 입각해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쓴다. 무심에 입각해서 '무아' 를 실천하는 것이다. 지켜보는 마음으로 의식 · 감정 · 의지를 쓴다. 각성에 입각해서 '무아' 를 실천하는 것이다. 각성으로 무념과 무심을 비춰보면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쓴다. 본성에 입각해서 '무아' 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아로써 지계바라밀을 행하는 세 가지 요지이다.

무아로써 지계바라밀이 행해지면 밝은성품으로 이루어지는 지계바라밀과 율법으로써 행해지는 지계바라밀은 저절로 성취된다. 진여수행에 있어서 지계바라밀을 행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 목적은 스스로가 분리시킨 생멸심을 저버리지 않고 제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진여심을 훼손시키지 않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10지의 절차에 따라 서로 다른 지계바라밀이 행해진다. 진여수행에 있어서 첫 번째 지켜야 할 지계바라밀은 열반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환희지에서 행해진다. 이구지에서는 스스로가 분리시킨 생멸심을 진여심과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발광지에서는 자성중생서원도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4지 염해지에서는 무념처를 통해서 생멸심의 의식을 일치시켰을 때 그 의식에 관여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㉛ 여래를 보려면

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도 아니다

알면 너무 쉽고, 모르면 너무 어렵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와 해석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단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작곡가가 하나의 음표를 이용하여 다양한 음률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의 단어도 아주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사전적인 하나의 의미로만 알고 있다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음률을 듣지 못한다. 음표가 위치에 따라 춤을 추듯, 단어도 음률을 가지며 춤을 출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단어 혼자만으로는 춤을 출 수가 없다.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표현력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단어는 독립적이지만 따로 떨어뜨려 놓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뒤섞어 놓아서도 안 된다.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 원래부터 그곳에 있는 단어처럼 놓아야 한다. 그렇게 놓아지면 그 단어는 본래의 단어가 아닌 새로운 단어가 된다. 그리고 살아있는 단어처럼 속삭이는 소리로 들어보라고 외치는 것 같다. 숨겨져 있는 소리 같지만,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사유한 인식과 기억하는 모든 것은 버려지고 관념 없이 듣기만 한다면, 숨겨진 소리가 아닌 본래 있는 소리를 듣게 되고, 지금까지 본래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무엇을 알지 못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마음과 조금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여래가 세상에 태어나 정각을 증득한 것은 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니네. 언어로 말할 수 있고 망상으로 분별한다면 상이나 혹 무상의 오류에 떨어지고 마네. 만약 분별 망상을 없애 버린다면 어리석은 범부의 상과 무상의 망견을 멀리 떠나 마음이 절로 청정해진다네."

'안다', '모른다' 는 단어는 옳고 그름의 뜻이 없지만, 알게 모르게 옳고 그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안다는 것은 의기양양하고 우쭐하게 만들고, 모른다는 것은 조금 겸연쩍고 부끄럽게 만든다. 그러나 정작 안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면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모른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상의 지식은 정답이 없다. 세상에서 안다는 것은 어떤 노력에 따라 대상인 지식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그때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섭렵하여 기억하는 것이 다양하고 많은 것일 뿐이다. 그러나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정보를 많이 외워 아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선택할 수 없음을 알 때 진리가 된다. 만약 진리가 누구로부터 선택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안다는 의미도 이와 같다. 안다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물질로서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물질에 대한 부정의 표현밖에 없다. 그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색다른 묘미를 가지게 된다. 진리가 가진 단어의 묘미를 안다면 표현하고자 하는 많은 언어들이 사용될 때마다 고목에서 새싹이 피는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진리를 아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지금까지 보고 들은 기억으로 아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고 알게 되면 이것이 진짜 아는 앎이다. 부족하다고 더 배워봐야 그것 또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니 굳이 더 배울 필요도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모른다' 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이다. 모른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다. 모르는 자를 자신이라고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것으로 되어버린다. 일반적으로 모르는 것은 관심이 없든지 아직 그것을 접하지 못해 배우지 못한 것이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아는 것도 없지만 모르는 것도 없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현재진행형이라 끝난 적이 없다. 오온에 대해 '나' 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알고 모르고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아는 마음이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마음이 모르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대로의 진행형에 점을 찍으려는 마음이 사라져, 본다는 마음도 없고 보지 않는다는 마음도 없어진다. 자신에 대해 안다는 마음도 없고, 모른다는 마음도 없을 때, 스스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여래를 알게 되는 것이 신비한 일이다. 왜냐하면 여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2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48호 | 17 | 전면광고

선지식의 말을 떠나지 마라.
선지식은 그대를 인도하여 험난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 이르게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 • 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가격협의
- 위치 : 경기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 주차가능 • 매가 : 33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받을 수 있읍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가격 : 1억 2천만원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대지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 옆에 작은 폭포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 매매가 : 1억 9천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2807-0509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태화강 부근 2층, 법당포함 35평
- 도시가스사용
- 보증금 1천, 월세 43만원
- 시설비 : 7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7942-9015

밀 양 법 당

- 밀양터미널앞 2층 60평
- 전세 : 1천만원, 월세 45만원
- 비품 : 300만원

010-9343-5657

동 진 불 사

- 위 치 : 경북 구미시 인근 (금오산자락)
- 부 지 : 약 2500평 (종교용지. 전)
- 법 당 : 40평 (목조. 단청)
- 요사채 : 2동 60평
- 기 타 : 산신각, 석탑 등
- 가 액 : 7억
- 특 징 : 도심 인근에 위치한 대가람으로 포교와 기도처로 좋습니다.
- 위 치 : 경주시 • 부지 : 약 800평 (종교용지)
- 법 당 : 40평 (목조, 단청, 3포7포)
- 요사채 : 50평 (목조, 황토)
- 산신각 : 7평 (닷집, 단청)
- 기 타 : 연못, 석탑, 석등
- 가 액 : 9억원 (조정가능)
- 특 징 :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로 좋습니다.

전국 소재 사찰, 절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좋은 인연

서울 010-5122-8080 대구 010-4927-0455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몸만 오세요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부근
- 대지 약 365평, 가용 평수 약 600평(하천부지 포함)
- 법당, 약사여래, 삼선각, 요사채, 스님이 사용하는 방 3칸, 입석부, 종무실 1개, 창고 2개, 신도님 식당, 23년 초 현대식으로 새로 지음, 주차장 완비
- 시내버스 거리,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 가액 : 4억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절 창건한지 90년

010-4583-4895

사 찰 안 내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6길 30, 3층 도불사(한국불교태고종)

- 법당 : 63평
- 보증금 5천만원, 권리금 1천5백만원, 월세 210만원, 관리비 30만원
-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스님께서 갑작스럽게 열반하심)

010-3784-0181

암자터, 명당안내

- 암자, 명상원, 산속찻집, 문화원으로 적합함
- 위치: 지리산 하동 악양면
- 청학골 전설의 두계곡 물이 합수하여 정원수가 됨(해발 200여m) 100여m 청석반석으로 물이 감아 흐름
- 482평, 평당 25만원

010-8637-3872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사찰 안에 계곡 축대 재공사 완료
- 차로 확장공사 완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절충 가능)

010-5421-1536

사 찰 안 내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4길 144-17
- 대지 260평, 법당 22평
- 산신각, 요사채, 창고, 화장실 2개
- 경내 잔디, 꽃, 나무 식재됨 (현 운영중)
- 즉시 법회 가능 (팔기 아까운 절)
- 매매가 대출 5천만 안고 3억 1천 500만원

010-8643-52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809
- 대지 411평
- 건물 1, 2층 (68평 정도)
- 금액 : 5억 9천 9백
- 암자, 토굴, 전원주택, 펜션, 사찰가능
- 바다조망

010-3000-5359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4천 5백만원

010-9424-4777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포교원안내

- 위치 : 성남시 상대원동
- 법당 1층 3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5만원, 시설비 1천 2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스님 사정상 임대합니다

010-5369-4154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 : 교통이 좋습니다.

010-2366-2821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포교당 (사찰) 안내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30평, 1층 후원, 2층 법당
- 태양광 설치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157-7697
010-4506-5302

사 찰 안 내

- 장호원감곡 KTX 역 10분 거리
- 종교부지 계획관리 750평, 대지 247평, 목조대웅전 50평, 휴게소, 각종전각, 요사채3채, 산신각, 연못, 잔디광장, 진시사리탑, 해수관음. (상담)
- 청주대형건물 100평 임대 및 매매
- 법당 50 산신각, 종무원, 주방, 스님대방
- 보증금 4000에 100만원 모든난방 최고시설, 약간 본인건물

1899-0047
010-5883-2255

토굴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 총평수 : 210평
- 법당, 삼성각, 요사체 (방 3)
- 보증금 500만원, 년 350만원
- 집기류 사용 가능 (완비)
- 즉시 입주 가능

010-5022-2187
010-5333-8905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010-4727-6065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2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48호 | 18 | 전면광고

명상에서 지혜가 생긴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워라.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 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경북 문경 쌍룡사

부전스님
모십니다

염불 및 제의식 집전한후
보시금 결정

010-8819-8988

공양주 구함

살림살 비구니스님 구함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안길 114-15
- 극락사
- 주지 벽송

010-9178-6397



점 연구원

- 미래 현재 과거 점 보는 법
-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는 없고, 좋은 팔자는 만들 수 있다 !
- 사주팔자 풀이 잘 안되는 분, 쉽게 풀이하는 법 전수
- 예) 명리 육임 육효
- 하늘, 땅, 나, 삼합 보는 법
- 준비물 없음
- 토화사 삼봉법사

010-3750-855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암, 간질, 공황장애, 음주, 우울증치료 치유가 90% 이상 가능합니다.

- 친견비 330만원
- 천도비 1억부터 시작
- 모든 사고사 예방됩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10-4804-230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⑭ 도라지꽃차

폐 기운 돕고 목통증 완화

민요 '도라지'의 가사인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는 동양철학의 깊은 뜻을 담고 있다. '도라지'는 '도(道)라지'이고, '백도라지'는 '백(白)도라지'로 흰 백(白)은 손괘(巽卦)로 하늘의 신도(神道)를 나타낸다. 또 '백(百)도라지'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는 진리는 100의 수리(數理)로 표상된다는 것이다. '심심산천'은 '심심산천(深深山川)'으로 깊고 깊은 마음의 산과 샘물을 의미한다.

도라지는 초롱꽃과 도라지속에 속한 여러해살이풀로 꽃은 하늘색 또는 백색으로 7~8월에 핀다. 꽃말은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며, 다른 이름은 약도라지, 고경(苦梗), 고길경(苦桔梗)이고, 생약명은 길경(桔梗)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지역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경북의 봉화, 충북의 단양 등이 대표적인 생산지이다. 이용 부위는 꽃과 뿌리이며, 차 또는 약용한다.

성분과 약성

도라지 성분은 사포닌, 폴리갈락식산(polygalacic acid), 글루코즈(glucose), 알파-스파이나스테롤(α-spinasterol), 이눌린(inulin), 스테롤(sterols), 베툴린(betulin), 플래티코도닌(platycodonin), 당질, 철분, 칼슘 등이 있다.

도라지는 성질이 차고, 맛이 쓰며, 독이 없다. 폐 기운을 잘 통하게 하고, 인후(咽喉)를 편하게 한다. 기침과 가래를 치유하고, 농을 배출한다. 목이 붓고 아픈 인후통, 이질 복통, 가슴이 답답한 것을 다스린다.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를 예방한다.

또 도라지는 사포닌이 풍부해서 몸의 피로를 막고 점막보호 기능이 뛰어나 면역력에 좋다.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함으로써 혈압조절에 도움이 되고, 폐암 등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마음, 기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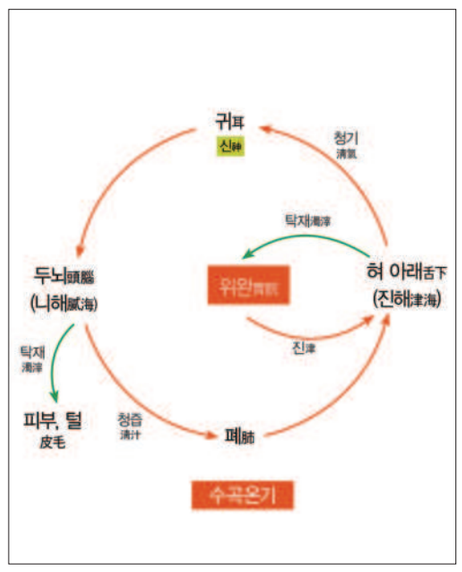
도라지는 폐를 견실하게 하는 태음인의 꽃차이다. 맛이 쓴 도라지는 폐의 기운을 맑게 하여, 태음인이 정직하고, 자신의 것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도라지는 폐의 기운을 맑게 하고, 견실하게 하는데, 이는 수곡온기의 폐(肺)와 관계된다. 수곡온기는 위완(胃脘)에서 진(津)이 생성되어 혀 아래의 진해(津海)로 들어가고, 진해의 맑은 기운은 귀로 나아가서 신(神)이 되고, 신은 두뇌로 들어가 니해(膩海)가 되고, 폐는 니해의 맑은 즙을 빨아들여 폐의 원기를 보익하고 다시 혀 아래의 진해를 고동시킨다. 도라지는 니해를 충만하게 하여 폐의 원기를 보익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도라지 속 사포닌 성분은 기침, 거담, 해열진해를 치료하는데, 이것도 폐의 원기를 충만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항염증 기능이 있어 인후염의 목통증을 완화, 예방해 주는데, 이는 수곡온기의 위완(胃脘)과 관계된다. 수곡온기에서 혀 아래 있는 진해(津海)의 맑은 기운은 귀로 나아가서 신(神)이 되고, 진해의 탁재(濁滓)는 위완을 보익하는데, 도라지는 진해를 충만하게 하여 위완을 보익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제다 및 음용

도라지꽃은 7~8월 이른 아침 봉오리를 채취한다. 봉오리를 갈라서 수술을 제거한다. 저온에서 꽃이 타지 않게 뒤집어가며 덖는다. 중온에서 바로 세워 덖음과 식힘을 더해 준다. 고온에서 맛내기와 가향 덖음을 하여 완성한다.

도라지꽃 3~4송이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1분 이내로 우린다. 도라지꽃차와 레몬을 블렌딩한다. 레몬은 비타민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건강은 물론 감기를 예방하고 또 피로회복에 좋다. 도라지꽃 블렌딩은 폐 기능을 돕는다. 가래를 삭혀주고, 코 막힘 또는 춥거나 두통이 있을 때도 효능이 좋다. 비타민C의 보강으로 감기를 빨리 낫게 한다.

도라지꽃 3~4송이, 레몬 슬라이스 1조각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로 우린다.

사상인별 음용 소감

태음인이 마셨을 때, 우림한 도라지꽃차는 눈으로 보는 색은 풀에 초록색으로, 막 돋아난 연한 초록색이다. 첫맛에서는 색처럼 구수한 누룽지 맛이 났지만, 뒤끝은 아린 맛이 났다.

우림한 꽃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연한 초록색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면 열이 싹 내려가는 서늘한 느낌이다. 하지만 목 저 끝에 아린 맛은 여운처럼 길게 느껴진다. 서늘한 느낌의 도라지꽃차이다.

다른 태음인 시음자는 도라꽃차의 건향은 덖음 정도가 잘 덖어져서 구수한 향이 먼저 스친다. 시음에서는 구수한 맛이 전체적으로 있고 입의 감응이 좋았다. 뒤에는 혀에 알싸함이 느껴지며, 혀끝이 따가웠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첫맛은 구수하고 끝 맛은 단맛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구수하면서 당기는 맛이었지만, 두 번째 잔부터는 도라지 특유의 아린 맛과 비릿한 맛이 났다. 특히 시간이 약간 지나면서 식은 도라지꽃차는 아린 맛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건강 365
③ 고령환자의 척추 치료

허리 질환, 대부분 퇴행성…맞춤 치료 필수

몇 살 정도의 나이를 "늙었다"고 해야 할까. 우리나라 노령인구의 기준은 65세이다. 하지만 실제로 65세의 인구를 보면 노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생각보다 매우 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나이에 비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리의 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살면서 허리 한 번 안 아파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어가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근골격계의 노화 역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오래 전에 평균 수명이 50살 정도였던 시절에는 뼈, 척추의 노화가 시작될 나이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실제로 노령인구는 크고 작은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힘든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보다는 오히려 뼈, 근골격계 통증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요추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 퇴행성 추간판 질환 등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진행하는 허리 문제는 명확히 말해 병이 아니다. 꼭 고쳐야 하는 병의 개념이 아닌 퇴행의 개념이며, 그렇기 때문에 증상과 치료도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새 차를 구매해서 잘 타고 다녀도 10년쯤 지나면 여기저기 삐걱거릴 것이다. 하지만 잡소리 좀 난다고 부품을 바꾸거나 새 차를 바로 구매하거나 하지 않는다.

근골격계 퇴행성 질환도 마찬가지이다, 허리에 비슷한 정도의 퇴행이 와서 협착이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멀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저림이 매우 심해 여러 치료를 받기도 한다. 이렇듯 같은 협착증에도 증상이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도 천차만별이다.

약, 물리치료, 주사치료, 시술, 수술 등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이며, 의학적 치료 방법 외에 침, 마사지, 사우나 등 대체의학적 치료법도 다양하여 환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때도 많다. 어떤 환자는 나는 똑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다녀보았는데 왜 의사마다 치료 방법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

앞서 말했듯이 퇴행성 허리질환의 경우는 각각의 경우마다 통증으로 느끼는 정도가 매우 다양하며, 질환 특성이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처럼 증상과 관련 없이 꼭 치료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관계로, 치료과정에서 만나는 의사들이 선호하는 치료 법, 노하우, 환자의 상황 등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으며, 이는 지극히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 대부분 치료 원칙이 있는데, 비교적 가벼운 비침습적 치료 방법부터 시작하여 증상의 호전도,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침습적 치료 및 상위 치료로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처음에는 약 복용, 물리치료 등으로 하고 효과 없으면 주사치료를 하고, 그래도 효과 없으면 시술, 수술 등을 진행한다. 물론 요추 협착증, 추간판 퇴행 등 노화의 과정이라 해도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바로 근력저하, 감각 이상 등의 마비가 있는 경우이며,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앞서 설명한 보존적 치료를 건너뛰고 바로 수술적 치료를 통해 신경손상이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즉, 마비가 있거나,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수술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면 꼭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것은 마취와 같이 진행되기 때문이며, 이 마취는 전신질환 및 나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환자와 치료하는 의사가 수술적 치료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마취가 안 된다면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물론 최근 수술 방법과 마취 방법의 비약적인 향상으로 이전보다 수술 및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나이와 동반 질환의 경우가 환자에게 많이 유리해졌다. 보통 허리의 퇴행성 질환에서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미 고령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령임에도 마취를 이겨낼 수 있는 전신 상태와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은 퇴행성 척추질환의 수술적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75세 전후의 환자가 내원한다면 수술적 치료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다. 물론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하였음에도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이며, 수술적 방법이 아니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즉, 시간을 끌고 기다린다고 호전될 가능성이 없으며, 조금 더 늦어질 경우 수술을 하고 싶어도 마취를 하기에 전신이 쇠약해질 가능성이 많고, 현재와 같은 고령 사회에 이런저런 잔병을 안고라도 90세 이상 충분히 여명이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80세 이전의 적절한 나이에 수술적 치료를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심해 거동이 힘들 정도에서 마취를 하지 못해 수술도 안 되는 상태라면 오래 살더라도 여생이 절대 편하지 않을 것이다.

허리 통증, 다리 저림은 고령으로 인한 요추 협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령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 증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만큼 퇴행이라는 것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며, 병의 개념이 아니므로 각각의 증상에 맞춰 정확한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최근 급격히 발달한 수술기법과 마취기술 덕분에 수술적 치료를 피할 수 없다면 고령임에도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술 방법이 고령의 환자에서 적절한 방법인지 척추전문의의 판단이 가능하며, 안전한 마취가 가능한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홍준 거인병원 척추클리닉장

거인병원
Geo-in Hospital
051)996.7000
동래사직운동장앞
어깨·관절·척추, 정형외과 중점진료
세분화된 진료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광고심의필:230622-중-155173
현대불교신문과 협약에 따라
구독자 비급여 10% 할인 제공
민경범 마취통증의학과 | 김종열 신경외과 | 최홍준 신경외과 | 이승준 대표원장 정형외과 | 민영경 병원장 정형외과 | 윤동길 정형외과 | 박지혜 내과 | 염동헌 영상의학과
보호자·간병인 걱정없는 전병동&전병상
24시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20 오감 일깨우는 일상 속 명상



▶한줄 요약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게 된다.

자투리 시간에 만드는 긍정적 태도

필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능한 1년에 2번 정도는 5일 이상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묵언수행 프로그램을 참여하려고 한다. 올해는 8월 중순 제주도에서 진행된 5박6일 묵언안거 집중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반도를 가로질러 북상한 태풍 '카눈' 때문에 제주행 비행기가 결항되어서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행히 태풍 세력이 일찍 약화되면서 늦게나마 합류할 수 있었다.

제주공항에 내려 서둘러 택시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 걸려 수행처에 도착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섰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다기세트와 홍차였다. 나무로 된 받침에 하얀 다기세트가 정갈하게 놓여있었다. 조그마한 찻잔 2개, 깨어나는 몸의 공간에서 두 눈을 감고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해보라는 안내 카드와 홍차 티백이 놓여있었다. 여행자가 도착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충전을 해보라는 메시지였다.

최상의 맛을 즐기기 위한 가이드도 친절하게 안내되었다. 찻잎 양은 2g, 물의 양은 100ml, 온도는 100℃, 첫 우림은 60초 후, 두 번째는 90초, 세 번째는 120초로 하라는 안내를 그대로 따르며 분주하고 조급했던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차의 매력에 폭 빠져보았다. 차를 소개한 안내 문구처럼 어린 찻잎의 섬세한 발효로 부드러워진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었고, 입 안 가득 퍼지는 꽃향기가 온몸에 따뜻하게 퍼지면서 마음도 같이 이완되고 편안해졌다. 달콤한 꿀향과 우디한 숲향의 묵직함이 드러나면서 찻잔의 잔향도 부드럽게 기분을 전환해주는 것 같았다.

여행객을 환대해준 차로 인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처음 방문한 곳에 대한 이미지도 매우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든지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음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편안함이고 행복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쁘고 조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차명상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하트스마일러로서 오감을 일깨우는 차명상을 학습하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3일간의 집중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매일 아침에 오감을 일깨우는 차명상으로 시작한다. 하루의 시작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뜻과 더불어 한잔의 차로 미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의 오감을 일깨워 편안하고 고요한 명상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다. 10분 내외의 시간으로 짧게 진행되지만 매우 효과적이다.

차명상 순서는 먼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따스하고 부드러운 찻잔의 감촉을 느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찻잔을 통해 손으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가 팔을 통해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면서 마음도 따스하고 훈훈해지는 것을 상상을 해본다. 그런 다음 주의를 서서히 찻잔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옮긴다. 찻잔이 늘 쓰던 것이면 익숙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본다. 신선한 눈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은 어떤지, 찻잔 속 찻물의 빛깔은 어떤지, 찻물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알아차린다.



10분 내외로 하는 간단한 명상
차(茶) · 산책 등으로도 가능해
판단하지 않는 수용적 자세로
오감 알아차리는 시간 보내길

그런 다음 서서히 잔을 코 가까이 가져가서 차의 향기를 음미해본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 쉬면서 향기를 맡아본다. 내쉬면서 코에 남아있는 차의 잔향도 알아차려본다. 차의 향기가 좋은 느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느낌이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음미한다. 늘 마시던 익숙한 차라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향을 맡아 보면 평소 알아차리지 못한 향을 느낄 수도 있다. 처음 대하는 것처럼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향기를 느껴본다.

다음에는 청각을 일깨운다. 서서히 움직이는 손과 팔을 알아차리면서 찻잔을 귀로 가져가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가만히 들어본다.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은 대로 그대로 알아차린다. 찻잔을 귀에 대고 소리를 들어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많이 한다. '왜 찻잔에서 소리를 들어보라고 하는 거야?' '찻잔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이거 왜 하는 거지?' 등등. 찻잔의 소리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각을 일깨우는 순서다. 찻잔을 든 손과 팔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면서 입술 가까이 가져가 본다. 잠시 멈추고 차를 마시기 전 입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때 입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침이 고일 수도 있고, 혀를 움직이면서 마시려는 의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어떤 반응이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다. 아직 마시지도 않았는데 차를 마시려는 의도만으로 혀와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다음 찻잔을 입술에 대고 입술을 적시면서 한 모금 입안으로 흘려 넣어 본다. 찻물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머금으면서 맛의 변화도 알아차려본다. 입안에서 입술이 움직이고 혀와 치아 그리고 입안의 각 부위에 찻물이 스며드는 것도 살펴보면서 천천히 찻물을 삼키면서 목으로 넘어갈 때의 감각, 식도와 몸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 입안에 남아있는 잔향 등도 음미해본다. 한 잔의 차를 마시는 시간은 10분 내외이지만 차를 통해 일깨워지는 오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온전한 모습을 경험하게 한다. 숙소에서의 차 한 잔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로 집중수행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같기도 하다.

한편, 묵언 수행 중 아침과 점심은 숙소 바로 앞 식당에서 해결하지만, 저녁은 오후 불식 원칙으로 바나나와 귤 등 간단한 간식만 제공되고 식사는 하지는 않았다. 숙소에서 식당까지는 걸어서 1분 내외의 가까운 거리이지만 필자는 그 시간에 오감을 일깨우는 마이크로 산책명상을 했다. 대상만 다를 뿐 차명상과 마찬가지로 안, 이, 비, 설, 신 오감을 알아차리는 생활 명상이다.

마이크로 산책이란 공간의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걷는 것을 말한다. 10m 정도의 짧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아주 작은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1년 365일 카메라에 담는 식이다. 일례로 하룻밤만에 새로운 잎이 돋아났거나 꽃이 핀 것을 볼 수도 있고, 땅속에서 개미들이 기어다니는 모습을 여유롭게 살펴볼 수도 있다. 비가 온 다음날 변해있는 주변의 모습, 바람이 불어 날리는 나뭇잎들, 바닥에 보이는 작은 것들. 호기심과 열린 감각을 가지고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바라보면, 신기하게 매일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습관적으로 지나쳐왔던 주변의 경이로움이 드러나게 된다. 숙소가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바닷가였기 때문에 매일 식당으로 걸어가는 짧은 시간동안 바닷가의 냄새, 파도소리, 바다의 빛깔 등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해보았다. 때로는 팔을 벌려 자연의 모든 것을 안아보기도 했다. 마음의 힘을 빼면 바람, 햇빛, 하늘, 땅 등 모든 것들이 항상 새롭게 느껴진다. 그 새로운 경험 속에는 기쁨, 행복, 고요, 편안함 등과 같은 것들이 함께 한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기까지 우리는 하루의 어느 순간을 걷고 있다. 우리에게 걷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는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걷는다. 또 걸으며 여러 생각에 빠져 주변의 것들을 세세히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도를 가지고 하루 중 10분 정도의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산책 명상을 실천해 보길 추천한다.

마이크로 산책의 핵심은 공간의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천천히 걷는 것이다. 원래 미국 뉴욕과 브루클린 등의 도심에서 먼저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낸다기보다는 점심식사를 마친 후 또는 잠깐의 여유 시간을 활용하는 것과 같이 일상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먼저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걸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고, 평소보다는 조금 느리고 여유를 가지고 걷는다. 걸으면서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차린다. 발바닥이 지면과 접촉할 때 느껴지는 촉감, 발의 무게감 등도 느껴본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발바닥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걷는다. 발에서 느껴지는 여러 감각을 바라보며 조금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좋다. 2분 정도 후에는 주의를 돌려서 걷고 있는 주변을 관찰해본다. 감각은 의식적으로 열어놓는다. 애써서 뭔가를 찾으려 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한다. 바닥, 좌우 경관, 하늘, 땅 등 무엇이든 시각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들을 바라보라. 좋다 싫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본다. 무슨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한다.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을 수용적인 태도로 보기만 한다. 2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의를 돌려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본다. 들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 같은 태도로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만 한다.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가까이에서 들리는 소리, 바로 옆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해본다. 2분 정도 후에 주의를 주변의 냄새로 돌려보라. 냄새를 맡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주의를 코의 감각으로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냄새를 경험할 수 있다. 2분 정도 냄새를 알아차리면서 걸어본다. 경험하고 있는 것을 통제하거나 변경시키려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 느낌은 실제이고, 지금 이 순간 온전히 현존할 수 있게 해주는 관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10분 정도 주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산책명상도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차명상과 마이크로 산책명상의 공통점은 짧은 시간에 오감을 일깨울 수 있는 효과적인 명상법이라는 점이다. 또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차를 즐기지 않는다면 커피로 대신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매일 어느 한 순간을 선택해서 현재의 순간에 의도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명상은 삶을 살아가는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어준다.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게 된다.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오늘 당장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선택을 해보기를 추천한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법상스님의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육조 혜능스님이 법문하신 육조단경의 핵심 내용을 배워보는 시간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토) 22:30



자현·광우스님의 끝판! 맛수다
자현스님과 광우스님의 '맛있는 수다' 재미있는 불교공부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19:30, (일) 14:00



동훈스님의 다음생 이야기
오늘 좋은 씨앗은 내일 좋은 열매!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일) 21: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 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대행 스님

그냥 이유를 붙이지 말고 불을 켜서 밝게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불효를 저지르고 그래서 "저놈은 죽어서 꼭 소가 될 거야. 미련스럽기만 하고 말이야." 이러고 항상 그랬는데 아, 딴은 죽어서 소가 됐답니다. 소가 돼서 자기네 그, 외양간이라 그러죠? 외양간에서 새끼를 낳았는데 말입니다, 그 새끼가 그 어미한테는 안 가고 자꾸자꾸 그 주인 부부한테 자꾸 비비고 그렇게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하도 신기하고 이상해서 아이, 매물을 주면 먹지 않고 말입니다, 아, 콩이나 이런 거 쒀서 다시 줘야만이 먹고 이러니 아,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는 어느 스님이 오셔서 그 스님한테 여쭤봤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소는 당신이 죽으면 미련스럽게 소가 될 거라고 그러던 아드님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 소는 소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콩하고 짚하고 썰어서 삶은 거 있죠? 여물!

그래서 여물을 쒀서 먹이는 데도 새끼와 어미, 그것이 다 같이 먹도록 그 스님이 그냥 놔두라고, 그거는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길을 걸어 봐야 알 바가 있을 거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는 그냥 소의 모습을 가졌으니 소 행동을 해야지 별수 있나요? 아무리 속으로는 '내가 사람이었는데….' 하더라도 소 허물을 썼으니 소 행동을 해야지 별수 없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애탄지탄하고 사람들한테 발버둥이 치고 하소연을 하고 음매음매 하고 애를 써도 그거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전연 다른 세계입니다.

이렇듯이 사람도 오늘 이렇게 사람으로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올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영이란 본래 체가 없는 거라, 즉 말하자면 원자에서 입자가 수만 개로 퍼지듯이, 또 하나로 뭉쳐지듯이, 벌어지고 뭉쳐지고 이렇게 작용을 무수히 하고 지금 우주 전체가 돌아가고 있듯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아까도 암흑 얘기 했지만 그렇게 진화돼서 해 나온 그 과정을 증명하려면 모두 여러분의 몸속을 보십시오. 그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업 선업이라는 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입력이 돼서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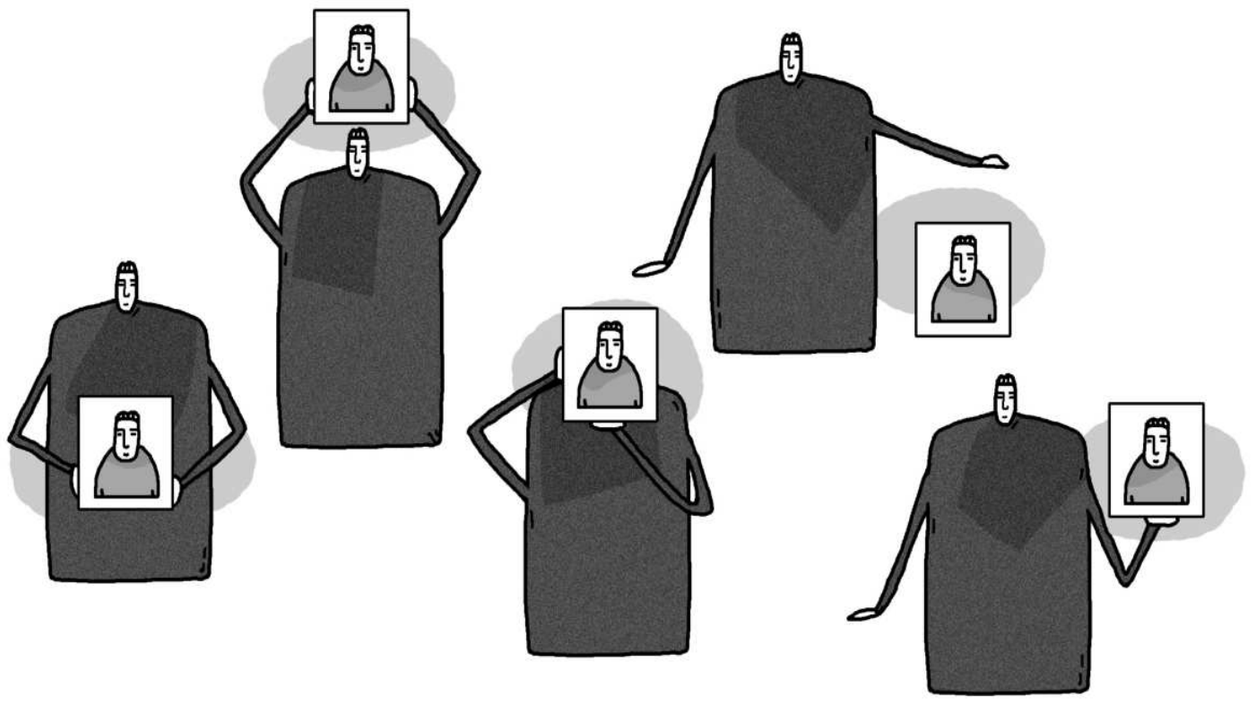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이 한마음, 이 도리를 공부한다면 이 마음이 '야, 네 몸인데 네 몸을 건강하게 끌고 다녀야지.'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입력이 된다면 그대로 그 마음이 전체에 입력이 되는 것이죠, 의식들이. 그래서 '아, 나를 몰랐는데 이게 내 집이고 내 몸이래.' 하고선 모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두뇌입니다. 마음이 바로 한 찰나에 두뇌로 올라가서, 즉 누진, 바른쪽 왼쪽의 그 작용의 핵심이 바로 누진입니다. 누진이 바로 사대로 통신을 합니다. 이 두뇌로 올라가서 통신을 해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그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파워를 일으켜서 잘못하면 살이 굳어지고 세포가 굳어지는데, 제 집이 없어지거든요. 제 집 망하는 거를 누가 좋아합니까. 제 집이 망그러지는데 누가 좋아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또 그 의식들이 들고 나면서 영계성이든지 세균성이든지 업보성이든지 유전성이든지 다 끌어들여서 파워를 일으키는데, 좋은 것도 끌어들이고 나쁜 것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이 주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의 주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놓고 돌아가는 것을 만약에 주인공의 그 주장자를 완벽하게 세우고 공부를 한다면 모든 게 그냥 삽시간에, 그 모두가 바깥으로는 털구멍을 통해서 보살의 행으로서 화하게 되고, 안으로는 안대로 보살의 행위로서 화하게 되니까 천백억화신으로서 화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모두가 이렇게 작용이 엄청난데, 하나도 작용 안 하는 것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 지구의 모든 것도, 물과 산도 이 들도 움죽거리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 인간의 수명은 70년 80년이지만, 그것들은 이천, 만, 십만 이렇게 수명이 길 뿐이죠. 이러한 법의 도리를 부처님께서는 49년을 설했고 여러분 앞에 그 길을 인도하면서 "절름발이로 살지 말아라. 또는 눈먼 장님으로 살지 말아라. 귀머거리로 살지 말아라." 이럭하고서 모든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게 홀로 높으니라. 홀로 높으니라. 천상천하에 유아독존."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크고 작고 높고 낮고 없이 전부 홀로 높으니라. 대장간 일 하는 사람은 대장간 하는 데서는 제일 높고, 또는 뱃사공 일 하는 데서는 뱃사공이 제일 높고 모두가, 농사짓는 일 하는 데서는 농사짓는 농부가 제일 높고, 아이, 모두 홀로 높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거 하는 사람이 저거 못 하고 저거 못 하는 사람이 이거 못 하니까 모두가 제가끔들 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 이런다면 그냥 믿는 것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가 행동, 말, 뜻 이 모두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속이 상한다, 뭐,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 이러더라도 말로 하고 몸뚱일 잡아 가지고 때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해와 바람이 싸운 얘기도 아시죠? 이 마음이라면, 마음을 붙잡아야 몸뚱이도 오지 마음을 붙잡지 않고 자꾸 욕을 하고 "너, 아이구, 요놈의 새끼! 너는 배울 시기에 못 배우면 깡통밖엔 못 차." 이러면서 갖은 욕을 하면서 불안을 격화시키고 온통 집안 식구들을 다 그냥 북북북북 긁으면 화를 내고 인제 이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입력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말한 대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아주.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누구를 막론해 놓고 자꾸 달아나갑니다, 추우니까. 보금자리가 너무 쌀쌀하고 추우니까 말입니다. 따뜻한 데로 찾아가느라고 자꾸 달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라 하면 그래도 가정에서도 어떠한 것이든 모든 거를 다 거기 맡겨 놓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어떠한 조건이라도 거기다 맡겨 놓을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한다면 같이 밝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밝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스스로 경험해 본 사람들이 다 말을 할 겁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사람이 자식이 하도 그냥 나가서 깡패들하고 같이 어울려서는 그저 보름 안 들어오기 예사고 열흘 안 들어오기 예사고 학교 가지 않는 것이 그냥 뭐, 다반사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부모를 자꾸 부르고 이렇게 되니까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뭘 자꾸 훔쳐 내간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도 뭘 훔쳐서 경찰서에서 자꾸 부르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학교도 퇴학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부모가 하도 그냥 애쓰다, 버린 자식으로 내놨다가 이 선원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아들의 주인공과,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과 엄마의 생명이 둘이 아니요, 또한 부모다 자식이다 하는 바로 인연줄이 있다. 인연줄이 있기 때문에 둘이 아

☞ 22면으로 계속



자기 스스로서 자기를 다스리면서 좋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 21면에서 계속

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다 맡겨 놓으면 인연줄에 의해서 거기까지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도리를 알고서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그렇게 했더니 한 두어 서너 달 되니까 아이, 장독대를 닦고 있는데 들어오더니만 "어머니, 모든 것을 잘못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하면서 "아이, 힘드시죠?" 그러면서 장독대를 옮겨 놓는데 그걸 듬성듬성 옮기면서 자기가 그냥 물로 닦고 그렇게 그 어머니의 어려움을 덜어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그 마음이 잦아져 가지고 어머니의 그 아픔을 아들이 알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해 가지곤 아주 그때서부터 학교에다가 잘못했다고 백배사죄해 가지곤 도로 학교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선 아들이 효자가 됐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당에 가고 죽어서 잘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없다면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때 과거에 어떻게 산 거를, 어떻게 했던 거를 알 수 있고, 바로 지금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꼬락서닐 보면 미래에 어떤 게 올 거라는 거를 모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기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법당에 들어오면 법당에 부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법당에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온 대로 거기 있는 자리에 부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당에 들어와서 절을 할 때는 부처님의 이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그 생명의 뜻이 내 뜻이요, 이건 둘이 아닌 고로 그저 삼배를 올릴 것도 급하면 일정례를 올리되 둥글게 해서 그저 내 주인공으로서에 하나로서 절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심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아상이나 아집이나 그런 거를 모두 죽여야 모두 한마음 속으로 들어갈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이 단어 없는 단어, 이것이 바로 우주 만유의 근본이며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해 가지고 나가는 이 작용 자체가 바로 불교입니다. 우리들을 떠나서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뭐가 있습니까. 무효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흐름이 있고 인연의 법칙이 있고 발전도 있고 창조력도 기를 수 있고 창조를 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놓은 것도 과학이요 밥을 지어 놓고 먹는 것도 과학입니다. 임신을 해서 어린애를 낳는 것도 과학입니다.

이거는 심성 과학이며 자동적인 과학입니다. 이 무수하고 광대무변한 이 자동적인 과학을, 심성 과학을 물질과학으로만 가서도 아니 됩니다. 모든 것이, 천체물리학도 이것은 심성물리학이라야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잘 터득을 하신다면 핵심에서, 천체물리학이니 과학이니 천체 모두가 나갈 겁니다. 천문학이니 하는 모든 게 전체 그 핵심에서만이 빛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혼자만 말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말을 했으나 나는 말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들은 게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은 게 없으면서도 바로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활 그 자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창조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인제 질문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자1(여)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아님이 없고 모두가 하나라고 하셨는데, 혹 어디가 아프든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스님께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스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하십니다. 전부 나 아님이 없고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할 때 스님이 곧 아실 거 같은데 정말 서로가 이렇게 통하고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꼭 입 밖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스님한테 알려 드리고 모두 이렇게 알려 드려야 되는 건지 그게 한 번씩….

큰스님 이거 봐요. 손을요, 이렇게 펴고만 있으면 병신이죠? 또 오그리고만 있어도 병신이죠. 이건 폈다 오그렸다 자유스럽게 해야 병신이 아니죠. 말할 때는 말하고 말을 안 할 때는 안 하고, 자유스럽게 해야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하고 만나지 않을 때는 (가슴을 짚으시며) 그냥 하고. 그것이 바로 내 주인공, 이 마음 안의 내면세계의 내 주인공만이,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통하고 돌아가니까요.

이게 즉 말하자면 신족통, 팩시밀리와 같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며, 그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반면에 마음도 전달을 할 수 있는, 같이 한 찰나에 하나가 되죠. 이렇게 물이 두 그릇이었는데, 때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딱 물을 한 방울 이렇게 넣으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있고 이건 이것대로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가 돼 버린 겁니다. (물을 다른 잔에 부어서 들어 보이시며) 한 그릇이 돼 버려요. 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한마음, 이 주인공이다 하면 일체제불하고도, 일체제불 하면 벌써 모든 전체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 주인공, 한 주인공의 한 찰나에, 즉 몸이 아플 땐 약사를 끌어서 쓰고 또는 가난할 땐 관세음을 끌어서 쓰고, 또 명이 짧을 땐 칠성불을 끌어서 쓰고 좋은 데로 가지 못해 애원하걸랑 지장을 불러서 쓰고, 이렇게 불러 불러 쓰는 거예요, 그냥.

이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예를 들어서 '아이구, 이거 우리 부모가 좋은 데로 못 가겠구나. 그러니까 좋은 데로, 당신만이 좋은 데로 가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가 맡기면 그냥 지장이 돼 버려요, 그냥. 지장이 돼서 그 영령들을 좋은 데로 인도를 한다 이겁니다.

> 어떠한 것이든 모든 거를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 어떠한 조건이라도 거기다 맡겨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응신이 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찰나찰나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불을 켜려면 스위치를 올렸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불을 안 켜고 그냥 캄캄하다 캄캄하다 하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캄캄하다 캄캄하다 하지 말고, 그냥 이유를 붙이지 말고 불을 켜서 밝게 살아라 이거죠.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공' 할 때는 내 주인공이나 일체제불의 주인공이나 일체 모두 하나가 되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하고 사시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나한테 닥치는 대로 거기다가 맡겨 놓고 가신다면, 맡겨 놓고 지켜본다면 그냥 거기서 그대로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은 너무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법이며 광대한 법이며 묘법인 것입니다.

질문자2(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벙어리로 어떤 사람은 귀머거리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정상인으로 나오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지체부자유나 정박아나, 그러니까 똑같지 못한 그런 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큰스님 자기가 한 대로요.

질문자2(여) 그럼 전생의 업 때문인가요?

큰스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에도 자기가 한 대로 지금 자기가 받고 가죠. 남의 따귀를 때렸으면 따귀가 오고요. 그런 거죠. 남을 기껏 두들겨 패 놓고 왔다면 그쪽에서도 앙심을 먹고 또 두들겨 패러 여럿을 끌고 또 오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린애 둘이 놀다가 한 애가 불집게에 정수리가 찔려서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후로다가 그게 논란이 됐어요. 생각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불집게로다가 그렇게 찔려서 죽었겠느냐? 그래서 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알고 짓는 죄는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짓는 죄는 모르고 받게 마련이다라는 얘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농촌에서 사는데, 깻벌레하고 거미가 옛날에는 무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 통에다가 오줌을 받아 가지고는 씩씩거리는 깻벌레를 집게로다가 집어서 그냥 연방 넣어서 죽였습니다. 깻벌레하고 거미하고 수년을, 수십 년을 그렇게 죽이다 보니까 그 의식들이 아주 그냥 똘똘 뭉쳐서 그만 인간으로 화한 겁니다.

그 집이 어린애를 못 낳았는데 어린애로 화한 겁니다. 형제가 됐어요. 그 형제가 인제 글방을 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스님이 난데없이 오시더니, 그 어린애가 당신들에게 오늘 저녁이면 원수를 갚을 테니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일러 주더랍니다. 겻불을 두 군데다가 켜 놓는데, 병아리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철망으로다가 이렇게 쳐 놓고 공석을 덮어 놓고 이렇게 겻불을 피우고 자식들이 올 때쯤 되면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뚜껑을 아주 덮고선 아무리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인기척을 하지 말고 그 인기척이 다 끊어진 뒤에도 한 시간 후에 나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본 거예요, 정식으로. 아닌 게 아니라 아, 얼마 있더니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배고파!" 이러고 들어오더니아, 나중에는 그냥 찾다 찾다 없으니까 "이 연놈들 어디 갔어?" 하하하,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니면 원수를 갚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시간이 넘어가면 우린 다 그냥 원수를 갚지 못하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하고 그냥 팔팔 뛰고 울면서 그냥 뭐, 거산을 하고 찾더라는 겁니다. "이 연놈들에 대한 마음이 수십 년 동안 응고가 돼서 내가 이 시간을 타서 원수 갚으려고 한 것이 세상에,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이 연놈들을 어떻게, 어떻게 씹어 삼켜야만 원수를 다 갚느냐?" 그러면서.

아, 그럭하고서는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고 너무나 무서워서 세 시간이 지난 뒤에 나와 보니까 한쪽에는 깻벌레가 싹 붙어서 전부 그냥 꿈틀거리고 한쪽에는 거미가 붙어서 그 안으로 그냥 잔뜩 들었더라는 겁니다. 죽고 그냥 꿈틀거리고, 그 겻불에 죽은 거라. 그러니 그 스님께서 얼마나 그 참, 그 노인네들을 건져 주셨습니까. 그러고서는 그 스님은 그 깻벌레와 그 거미를 정식으로 화하게 해서 인간으로 탄생을 하게 해 주셨다는 그런 이치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자기가 벌여 놓지 않은 거는 자기 앞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벙어리로 태어난다든가 불구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보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동시에 같은 그 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도 죽겠지만 보는 사람도 정말 그 못지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지 말라고. 그 모두가 이 세상천지에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네 앞에 닥치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흑인이 백인 낳을 수가 없다고요. 뭐,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이건. 요만한 거 하나도 거저가 없고 요만한 거 하나도 에누리가 없습니다. 참 철두철미합니다. 여북하면 악업을 짓지 말고 선덕을 쌓아라, 선업을 지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나쁜 일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한다면 악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서 자기를 다스리면서 좋은 공덕을 쌓아야죠. 그리고 또 그런 업장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마음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고 거기다가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공부를 한다면 아주 그게 무너지죠.

※위 법문은 1992년 7월 26일 국외 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기호, 웃음을 표현한 ‘이모티콘’
표현 수단, 언어보다 비언어가 높아
웃음, 기쁨과 보이는 무의적인 표현

“어른의 웃음, 하루 15회 불과” 연구
온라인 소통인해 웃음 잃을 환경 노출
웃음은 육체 · 정신적 중요 소통 수단
웃음이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되찾길

웃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스마일리(smiley)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최초의 디지털 이모티콘’의 별칭이다. 웹이 등장하기 10여 년 전인 1982년,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의 컴퓨터공학자 스콧 팔만은 학내 게시판에 세 개의 구두점으로 구성한 :-) 기호를 제시하고, 이를 웃는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모티콘이 웃는 얼굴 표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 ‘스마일리’이다.

웃음을 포함한 표정, 몸짓, 신체적 접촉과 같은 표현 수단을 통한 소통 행위를 커뮤니케이션학에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언어가 인간 소통의 지배적인 수단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정관념일 수 있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표현 수단으로서 비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65%로 언어보다 높으며, 비언어가 의미 전달의 93%를 차지한다.

인터넷 초기에 문자 기반의 의사소통이 주를 이룬 가운데,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을 높이려는 고민의 산물이 ‘이모티콘’이다. 정보전달에 효과적인 언어와는 달리 비언어적 요소는 느낌과 감정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웃음은 기쁨과 만족감을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표현 수단으로서, “전달력이 강하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형식”이다.

웃음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가 하루에 400회를 웃는 데 반해 성인의 하루 웃음 횟수는 15회에 불과하다. 성인이 되기까지 사회화 과정에서 소음유발 우려나 예의범절을 이유로 웃음을 자제시키는 교육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소셜미디어 같은 온라인 소통의 증가에 따른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감소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소통시대에 인간은 이모티콘이 웃음을 대체하여, 웃음을 잃어버리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및 소통 환경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웃음은 정신과 육체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의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웃을 때 사람은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베타엔도르핀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진다. 또한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의 레벨을 낮춰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질병을 예방한다.

미국의 심리신경과학자 로버트 프로바인은 저서 〈웃음: 그에 대한 과학적 탐구〉에서 웃음의 전염반응은 즉각적이고 비자발적이며, 사람들 사이에 가장 직접적 소통인 뇌 대 뇌의 소통이라고 적고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실반 톰킨스가 1960년대 개발한 안면 피드백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감정 체험은 얼굴 표정의 영향을 받으며, 표정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한다. 달리 말하자면, 유머 같은 웃음의 소재가 없이 입꼬리를 올려주는 신체 움직임만으로도 우리 두뇌는 좋은 느낌을 유발하고 기분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고정화된 관념의 틀을 바꾸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리프레이밍(reframing)’이라고 한다. 웃음을 대하는 관점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대행선사는 “어떤 생각이 나오든, 내 근본 마음자리에서 들고나는 줄 안다면, 허허 웃으며 나온 자리에 다시 되돌려 놓을 수가 있다”라면서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라고 설법하였다.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나’라는 고정화된 관념을 ‘웃음을 통해 기쁨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꾸어보는 것도 하나의 리프레이밍이다. 웃음은 인간의 삶과 공존을 풍요롭게 하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과 공동체 속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이제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야 할 시간이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⑰ 김시습의 ‘금오신화’

‘금오신화’ 읽는 여름밤

여름산의 수목(樹木)들을 보고 있으면 생명력 넘치는 짙은 녹음 때문인지 식물성을 버리고 동물성에 귀속된 것만 같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필자는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의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책장에서 꺼내서 읽는다.

〈금오신화〉가 중국의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금오신화〉가 〈전등신화〉보다 심원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같은 명혼(冥婚)이라는 소재를 차용해도 〈전등신화〉는 흥미를 유발하는 데 그치는 반면 〈금오신화〉는 삶과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다. 이는 김시습이 설잠(雪岑)이라는 법명을 지닌 승려였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김시습은 조선 전기의 학자이다. 5세에 세종에게 불려가 시를 지어 칭찬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1세에 세조 찬립의 소식을 듣고서 승려가 됐다. 59세에 부여 무량사(無量寺)에서 〈묘법연화경〉 발문을 쓰고 일생을 마감했다.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김시습이었기에 스스로를 ‘방외인(方外人)’이라고 칭할 정도로 세상의 격식에서 자유로웠던 것이다.

〈금오신화〉에는 귀신과의 사랑 이야기, 선녀와의 만남, 저승 여행, 용궁 여행 등 비현실적인 작품들만 수록돼 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판타지 문학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작품 속 주인공들이 비현실세계에서 현실세계로 돌아온 뒤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인공들은 모두 죽거나 출세간의 길을 떠나 자취를 감춰버린다. 이처럼 김시습이 독자들을 인도하는 세계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한 시공간이다.

필자가 〈금오신화〉에 실린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이생규장전’이다. 이생과 최가의 처녀가 주고받는 연시(戀詩)는 서정의 결이 돋보인다. 이생이 처녀를 처음 본 것은 우연히 최가(家)의 담 안을 엿보면서이다. 담 안의 처녀를 엿보는 찰나 이생의 사랑은 시작되고, 처녀를 따라서 죽음으로써 이생의 사랑은 끝을 맺는다.

이생과 최가 처녀의 사랑이 그러했듯이, 김시습의 문학 역시 비극적 운명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초연하게 생의 길을 걸어갔으므로 찰나에서 영겁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금오신화〉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귀(鬼)란 음(陰)의 영(靈)이고, 신(神)이라는 양(陽)의 영이다. 대개 귀와 신은 조화의 자취이고 이기(理氣)의 양능(良能)이다. 살아 있을 때는 사람이라고 하고, 죽은 뒤에는 귀신이라 하지만, 그 이치는 다르지 않다. 귀란 구부러진다는 뜻이요, 신이란 편다는 뜻이다. 신은 조화와 합치하는 까닭에 음양과 더불어 끝나고 시작되며 자취가 없다.”

허공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한조각 구름처럼 삶의 순간들은 인연(因緣)이 모였다가 흩어진다. 수꿀한 여름날의 녹음도 언젠가는 푸름을 버리고 낙엽이 되어서 뿌리로 돌아갈 것이다. 김시습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삶도 죽음도 이르지 못하는 세계, 바로 원각(圓覺)이 아닐까? 〈소설가〉

社 說

녹색사찰, 환경보살로 가는 길

2018년 고양 금륜사로 시작된 불교환경연대의 ‘녹색사찰’이 5년여 만에 등록 50호 사찰을 돌파했다. 연평균 10개 사찰이 ‘녹색사찰’로 등록하는 추세로 그 증가세는 조금 더딜 수 있다. 하지만 사찰 사부대중의 환경인식 개선 효과만큼은 확실하다고 한다.

녹색사찰 50호의 주인공은 고양 법문사로 8월 16일 불교환경연대와의 협약을 통해 녹색사찰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저녁, 울산 황룡사가 울산불교환경연대와의 협약으로 녹색사찰 51호가 됐다.

2000년대 불교환경연대의 환경운동은 ‘이슈 파이팅’에 집중됐다. 물론, 빈그릇 운동과 생태방생 등 다양한 실천활동도 있었지만 큰 파장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201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이슈 파이팅’만으로는 환경 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워졌고, 대중적 환경운동으로 저변확대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것인 ‘녹색사찰운동’이다.

녹색사찰 운동은 사찰 내부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후문이다. 고양 금륜사는 비닐을 쓰지 않기 위해 떡을 뻥튀기에 올려 나눠주기도 했고, 신도들에게 용기 지참을 공지했다.

불교환경연대가 추진하는 녹색사찰 운동은 사찰로 시작한 환경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교환경연대 지부를 늘려 지역 단위 소통에 힘쓸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사찰들이 지역사회에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통일된 교안 등을 불교환경연대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보천리(牛步千里)’라는 말이 있다. 소의 걸음으로 천 리를 간다는 뜻이다. ‘녹색불교운동’은 느리지만 확실한 ‘녹색불교’로 가는 걸음걸음이다.

동국대, 합장 생활화 환영한다

합장(合掌)은 두 손을 모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한 뒤 상대를 향해 인사하는 불교 특유의 인사법이다. 이는 불 · 법 · 승 삼보에 귀의함을 표하는 예법이자 흩어진 마음을 일심(一心)으로 모은다는 의미도 있다. 무엇보다 합장 인사는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여기며 존중한다는 마음의 표현이며, 나와 남이 대립하는 일이 없이 하나의 진리 위에 있는 불제자라는 무언의 표시이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만남과 헤어짐, 기도와 예불에서 합장으로 시작해 합장으로 끝을 맺는 것이다.

동국대가 매달 11일을 합장데이로 정하고 합장 인사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도 한다.

‘합장데이’는 지난 5월 윤재웅 총장이 발표한 ‘동국 Meta Plan 120’의 중심 추진과제 중 건학이념 교육과 전법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이다. 합장인사를 동국인의 공식 일상 인사법으로 적극 도입하고 확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매달 11일을 합장데이로 선포했다.

지난 8월 11일에는 교내 정각원 법당에서 합장데이 캠페인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합장 인사의 의미를 공유했다.

교육기관의 인사법으로 불교 특유 예법을 행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합장을 하는 이유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의미이자 인사를 하는 당신을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존중하겠다는 의미 역시 지니고 있다”는 정각원장 진명 스님의 설명처럼 합장은 불교 예법이면서도 타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커뮤니케이션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상실되는 작금의 시대에 합장은 존중을 교육하는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다. 합장데이로 인해 합장 인사가 동국대의 공식 인사법이 되길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개정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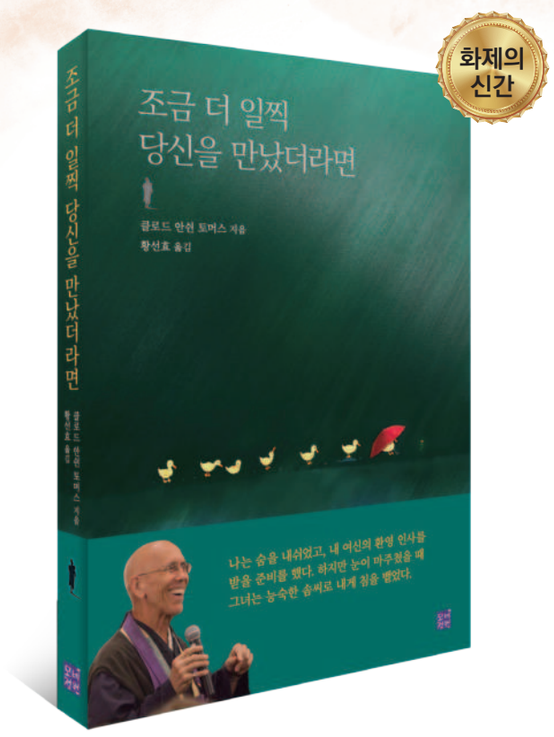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